

T000029463

MONO1201420876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1234-000254-01

이어도 주변해역의 해양 · 법적 · 인문학적 조사 및 DB구축 결과보고서

2012

국 토 해 양 부
국 립 해 양 조 사 원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목차Contents

I. (사)이어도연구회 개관	3
1. 창립배경	3
2. 창립경과	3
3. 주요현황	6
II. 2011년 주요사업 성과	9
1. 학술대회 및 행사개최	9
(1) 국제 학술대회	9
(2) 국내 학술대회	27
(3) 국내 전문가워크숍	38
(4) 이어도해양아카데미	43
(5) 해양누리호 통한 이어도해양과학기지 방문실시	51
(6) 학습동아리 세미나	54
(7) 이어도문학회 활동지원	55
2. 대외협력사업	59
(1) 국내외 해양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성	59
(2) 제주여성 이어도지킴이 활동지원	62
(3) 청소년 이어도지킴이 활동지원	66
(4) 이어도아카데미 원우회 이어도 홍보	71
(5) 청년이어도지킴이 출범	72

(6) <제주KBS> 아침뉴스 이어도해역 날씨정보 제공	73
 3. 연구과제	74
(1) 2012 이어도연구 수행과제	74
(2) 2012 이어도연구과제 최종보고서	75
 4. 연구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77
(1) 언론홍보 추진-중국의 이어도 동남공정(東南工程) 적극 대응	77
(2) 이어도 문화홍보-이어도 노래제작	77
(3) 연구자료 배포	80
(4) 영문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90

I. (사)이어도연구회 개관

1. 창립배경

이어도 주변해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협상을 지속해왔다. 이어도 수역은 중국으로부터도 200해리 이내에 위치해 있어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수역이어서 중국이 틈만나면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과 관련해 중국은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나 이의제기와 건설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도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앞으로 한·중 양국의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미래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한·중·일 간 해양관할권 논쟁이 예상되는 이어도는 이제 종합적인 학문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법, 제도, 문화, 역사 등 제반분야에서 우리의 논리를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사)이어도연구회는 해양영토문제의 갈등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를 위해 (사)이어도연구회는 이어도에 대한 학문적인 자료구축을 지속했다. 또한 이어도 주변 해역의 관측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다. 이 같은 자료를 활용한 국내외적 교류협력, 국제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어도에 대한 학문·정치경제적 가치를 재확인해 해양 분쟁에 대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2. 창립경과

1) 설립 필요성

(사)이어도연구회는 2007년 1월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에 연구회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해양수산부에 사단법인 설립취지서와 정관 등을 제출, (사)이어도연구회 설립을 공식 요청했다.

(사)이어도연구회는 사단법인 설립을 제안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중·장기 사업목표’와 ‘2007년도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중·장기 사업목표’는 ▲이어도관련 법제연구 및 해양수산정책 발굴 ▲이어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보존과 자료수집 ▲이어도 해양자원 발굴 및 관리방법 ▲영토관리 및 국내·외 홍보 등이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이어도관련 국제법적 관리방안연구 ▲이어도의 인문학적 종합연구 및 기초자료 DB구축 ▲이어도 해양자원 및 공학관련 관리방법연구 ▲이어도연구회 홈페이지 개설 등이다.

2) 공식발기

(사)이어도연구회는 연구회 설립취지에 뜻을 함께한 인사들과 함께 연구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갖고, 이어도연구회를 공식 출범했다. 출범을 위한 발기인대회는 2007년 3월8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발기인으로는 모두 23명이 참여했다. 발기인대회에서는 ▲설립취지 채택 ▲정관 심의 ▲출연내용 ▲이사장 선임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등이 논의됐다.

발기인대회를 통해 (사)이어도연구회 초대 이사장으로 고충석 당시 제주대학교 총장이 선출됐고, 이사로는 한림화 소설가, 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이병걸 제주대 교수, 강문원 변호사가, 감사로는 현명택 제주대 교수가 선임됐다.

3) 사단법인 인가(등록)

해양수산부는 2007년 8월 (사)이어도연구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요청을 공식 인가했다. 이에 이어도연구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조직체계를 공식 갖추게 됐다.

당시 언론매체는 (사)이어도연구회 설립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 언론매체들은 보도를 통해 “‘전설의 섬’ 이어도에 대한 민간 차원의 연구를 맡게 될 최초의 민간단체 ‘이어도 연구회’의 설립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시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어도연구회 사단법인 등록 기사

‘전설의 섬’ 이어도 연구회 설립허가

(연합뉴스 2007년8월1일자)

‘전설의 섬’ 이어도에 대한 민간 차원의 연구를 맡게 될 최초의 민간단체 ‘이어도 연구회’의 설립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1일 학계가 주축이 돼 지난 3월 발기인 대회를 갖고 출범한 이어도 연구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가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해 오에 따라 정관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해양부 관계자는 "연구회측에서 정관개정이 끝나면 최종검토를 거쳐 설립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게 될 제주대 이어도연구센터장 이병걸 교수는 "이어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권리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이어도 관련 자료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수집한 자료, 이어도와 관련된 주민들의 증언 등을 모으고, 이어도를 우리 국민들을 비롯 전세계인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3월 이어도의 자연환경 및 유용생물의 개발과 보존, 이어도의 법적 지위권 확보, 이어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설립된 제주대 이어도 연구센터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관할하는 국립해양조사원, 동중국해 해양과기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부경대 등에서 수집.연구된 자료를 민간차원으로 확산해 가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이어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아직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를 확정하지 않아 해양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어도와 우리나라의 최남단 섬인 마라도와의 거리는 149km인 반면 이어도에서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舟山)군도의 여러 섬 가운데서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까지의 직선거리는 247km나 된다.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EEZ 안에 있다는 해석 아래 국제법규상 자국 EEZ 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근거로 1995~2003년 이어도에 플랫폼 형태의 종합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속한 해역이 양국이 주장하는 EEZ끼리 중첩되는 해역이어서 EEZ 경계확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한국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생(대학원생)으로 있는 왕젠싱(王建興.32)씨는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쑤옌차오보위협회’라는 단체설립을 추진, 이어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한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수중암초에 ‘중국령’이라고 새겨진 동판과 석비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어도에 대한 권리 주장에 나선다면, 강대국 중국과 국가 대 국가로서의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도는 우리나라가 관리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울 기자

3. 주요현황

(사)이어도연구회는 출범 후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비롯해 사업추진·성과 점검, 능력있는 이사진 및 자문위원단, 연구원 충원 등을 통해 조직과 사업의 양과 질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 11월 현재 (사)이어도연구회의 조직현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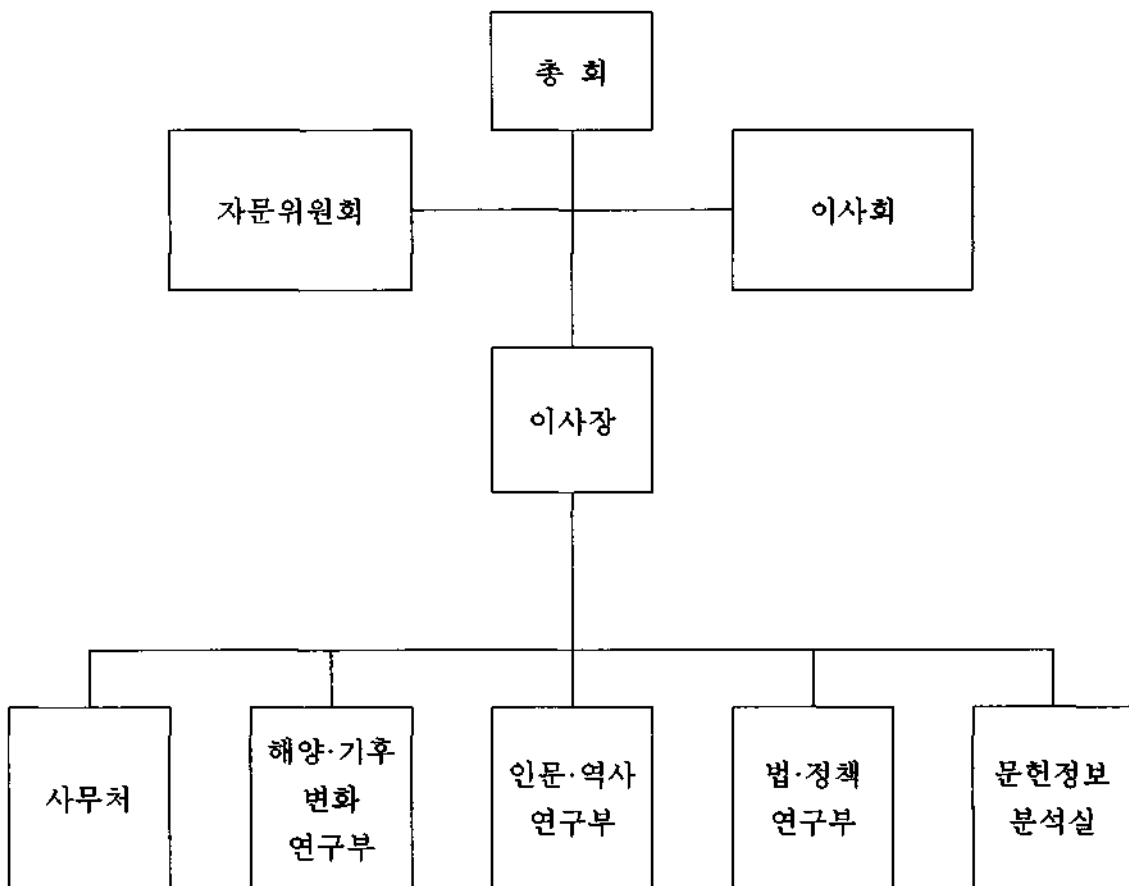
1) 조직현황

◆ 표=이어도연구회 이사·자문위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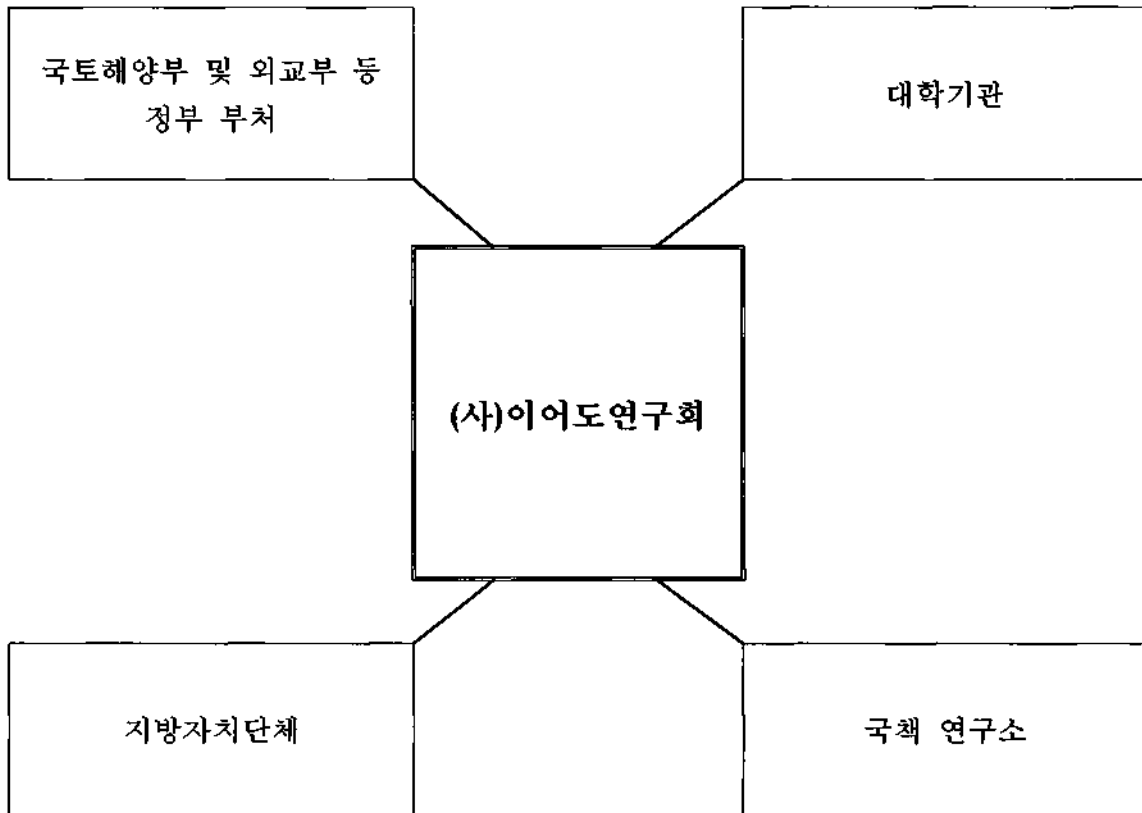
직 합		성 명	경 력
이사	이사장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
	이사	강문원	변호사
	이사	강원철	전 제주도의회 의원
	이사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사	김용구	국회의원(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사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학술원 회원)
	이사	오현봉	JIBS제주방송 사장
	이사	유춘기	전 교육부 이사관
	이사	이병걸	제주대 교수
연구위원(연구원)		이병걸	연구이사·제주대 교수
		유춘기	업무이사(전 교육부 이사관)
		송성대	상임연구위원(제주대 명예교수)
		최연홍	전 미국 국방장관실 환경정책 보좌관
		장일홍	극작가(전 제주교육박물관장)
		주강현	해양연구센터장(제주대 석좌교수)
		부영주	전 제주일보 논설위원
		이기복	해양연구센터 상임연구위원
		강병철	학술연구실장
		김민영	연구원
		이정원	연구원
사무위원		고기택	사무처장
		이우석	사무국원
		최미경	연구지원팀장
자문위원		김길영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
	김성진	한경대 총장(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 신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김영구	려해연구소 소장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
	이기석	서울대 명예교수(학술원 회원)
	이대근	경향신문 편집국장
	이동인	부경대 대기환경학과 교수
	이보람	세계기상기구(WMO) 연구위원
	이상태	한국문화대학원 석좌교수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장
	이용중	동국대 교수

◆ 표=이어도연구회 조직도



2) 이어도연구회 협력시스템



1. 이어도 및 동중국해 관련 각종 보고서 발간
2. 연구자료집, 각종 보고서 발행
3.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 이어도 관련 국내외 연구Network구성
5. 이어도에 대한 국내외적으로 인문, 역사, 자연, 해양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연구를 통한 논리 개발 연구
6. 이어도 주권확보를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II. 2012년 주요사업 성과

1. 학술대회 및 행사개최

(1) 국제학술대회

1) '북태평양과 주변해역의 데이터부이 협력패널 전문가 훈련 및 교육'

- 일시: 2012. 7. 9-13. 08:45~19:00
- 장소: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 주최 및 주관: (사)이어도연구회, WMO(세계기상기구), IOC(국가간해양과학위원회), 국토해양부, 한국기상청, 제주대학교
- 주제: 새로운 GEOSS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파트너쉽 외 27건
- 참석인원: 약 40명
- 성과: DBCP국제회의에서 동해를 East Sea/Japan SEA로 명기, 향후 동북아시아에 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주관이 되어 매년 개최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인정
- 세부일정

Day 1: Monday 9 July 2012

Opening Day Remarks, Regional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in Pacific Ocean and Its Marginal Sea

Day 2: Tuesday 10 July 2012

Effective Technical Methods for Ocean Data Buoy in Pacific Ocean and Its Marginal Sea

Day 3: Wednesday 11 July 2012

Remote & In-Situ Ocean Observation System and Atmospheric Sciences

Day 4: Thursday 12 July 2012

Field Trip for the Sea Level Change Area and Ocean Observation System around Jeju Island, South Korea

Day 5: Friday 13 July 2012

Workshop Concluding Remarks

◆ 표=워크샵 일정별 내용

TIME	SUBJECT	LEAD
Day 1: (9 July)		
Opening Day Remarks, Regional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in Pacific Ocean and Its Marginal Sea		
13:30-14:00	Opening Ceremony (Registration, VIP addresses)	President of Jeju National Univ.& Society of Ieodo Research
14:00-14:30	Partnerships for New GEOSS Applications(PANGEA)	Sidney Thurston (NOAA)
14:30-15:00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GFGC)	Boram Lee (WMO)
15:00-15:30	Overview of Operational Ocean Monitoring System in the KMA	Sung Hyup You (KMA)
15:30-16:00	Tea Break & Group Photography	
16:00-16:30	The Technologies Based on the "Bai-long" Bouy and Atmospheric Weather Station	Chunlin NING Lin (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16:30-16:50	Oceanographic Changes in Korea Waters during the past 40 years driven by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Sukgeun Jung (Jeju National Univ.)
16:50-17:10	Mechanism of climate change teleconnection between the North Pacific and North Atlantic	Yury Zuenko (TINRO center, Russia)
17:10-17:30	Simultaneous Pacific and Atlantic regime shifts through northern hemisphere teleconnection patterns	Juergen Alheit (Leibniz Institute For Baltic Germany)
17:30-18:00	Difficulties and Failure Cases of Real Time Ocean Monitoring Buoys	Sang-Uk LEE (Otronix Co., LTD)
18:00~	Banquet From Jeju Sea Grant Center	

TIME	SUBJECT	LEAD
Day 2: (10 July)		
Effective Technical Methods for Ocean Data Buoy in Pacific Ocean and Its Marginal Sea		
8:45-9:00	Daily Planning	Sidney Thurston(DBCP) & Byung-Gul Lee (JNU)
9:00-09:30	Introducing the Indonesian Buoy Network Associated with ITF Study and Vandalism Issue	Djoko Hartoyo (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BPPT)
9:30-10:00	Discrete layer-peeling approach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ocean	Youngchol Choi (KORDI)
10:00-10:30	Deployment and Maintenance of Real Time Monitoring Buoy System in Coastal Areas,	Sung-Jun Kim Geosystem Research Co.
10:30-11:00	Morning Tea Break	
11:00-11:30	Development of Offshore Real-time Monitoring Buoy System	Sin HEO (Ocean Tech Co., LTD.)
11:30-12:00	Dynamical Behaviors of Rainfalls in Complex Areas	Kyungsik Kim (Pukyung National Univ.)
12:00-12:00	Buffet Lunch	
14:00-14:30	Software system for tidal data management and real time quality control for ocean observation data	Gi-Gap Ha (KESTI)
14:30-15:00	Introduction of a Simple Acoustic Data Buoy used in Ocean Acoustic Tomography	Yiwang Huang (Harbin Engineering Univ.)
15:00-15:30	Sound Propagation in Low-salinity Water near Jeju Island during Summer	DONG-guk PAENG (Jeju National Univ.)
15:30-16:00	Afternoon Tea Break I	
16:00-16:30	Ambient Noise Measurements in Shallow Water off the Coasts of Korea	Jee Woong Choi (Hanyang Univ.)
16:30-17:00	Acoustic Data Assimilation: A Review of the Current Effort	Wen XU (Zhejiang Univ.)
17:00-17:30	Realization of underwater acoustic data gathering equipments with coherent array sensing and its applications	Choe, Mi-heung (Kyungwon IND, Co. Ltd)

17:30-18:00	Discussion of Today's Hot Topics	Sidney Thurston (DBCP) Byung-Gul Lee(JNU)
18:00-	Banquet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TIME	SUBJECT	LEAD
Day 3: (11 July)		
Remote & In-Situ Ocean Observation System and Atmospheric Sciences		
8:45-9:00	Daily Planning	Byung-Gul Lee (JNU)
9:00-9:30	Orographic Effect of Jeju Island on Rainfall Enhancement in Moist Environment	Hiroshi Uyeda (Nagoya University)
9:30-10:00	Upper air observation at Jeodo Ocean Research Station, Korea	Dong-in Lee (Global Research Lab.)
10:00-10:30	The Effect of Yellow Sea Bottom Cold Water on the Sea Surface Temperature in summer 2011	Ig-Chan Pang (Jeju National Univ.)
10:30-11:00	Morning Tea Break	
11:00-11:30	Difference of Kinematic and Thermal Structure in Precipitation Between Korea, Japan and Taiwan	Dong-in Lee (Global Research Lab.)
11:30-12:00	Characteristics of Networks in Three Oceans	Woon Seon Jung (Pukyung National Univ.)
12:00-14:00	Buffet Lunch	
14:00-14:30	Coastal Ocean Wave Characteristics of Around Jeju Island	Jung-woo Ko (Jeju National Univ.)
14:30-15:00	Statistical analysis of measured wind data at the Jeodo Ocean Research Station	Jin-ho Bae (Jeju National Univ.)
15:00-15:30	Afternoon Tea Break I	
15:30-18:00	Discussion of Future DBCP Capacity Building Planning	Byung-Gul Lee(JNU)
18:00-	Final Banquet From KSCE Jeju Region	

TIME	SUBJECT	LEAD
Day 4: (12 July) Field Trip For the Sea Level Change Area and Ocean Observation System Around Jeju Island, South Korea		
9:00-9:10	Daily Planning	Sidney Thurston(DBCP) & Byung-Gul Lee (JNU)
9:10-18:00	The Sea Level Change Impact Region & Korea Ocean Observation System Around Jeju Island	KOHA JNU

TIME	SUBJECT	LEAD
Day 5: (13 July) Workshop Concluding Remarks		
9:00-12:00	Workshop Recommendation and Future DBCP Capacity Building Planning	Sidney Thurston(DBCP)
12:00-	Conclude the First DBCP-CB NPOMS	

*** 국가별 참가 기관 및 단체**

China

- **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FIO)**
- **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 **Zhejiang University**

Germany

- **Leibniz Institute for Baltic Germany**

Japan

- **Nagoya University**

Indonesia

- **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BPPT**

Korea

- **Geosystem Research Co.**
- **Global Research Laboratory (GRL)**
- **Hanyang University**
- **Jeju Sea Grant Center**
- **Jeju National University**
- **Korea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Institute (KESTI)**
-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 **Korea Ocean and Hydrographic Agency**
- **Korea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Institute (KESTI)**
-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 **Kyungwon IND, Co. Ltd**
- **OCEANTECH Co., LTD.**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Society of Jeodo Research(SIR)**

Rus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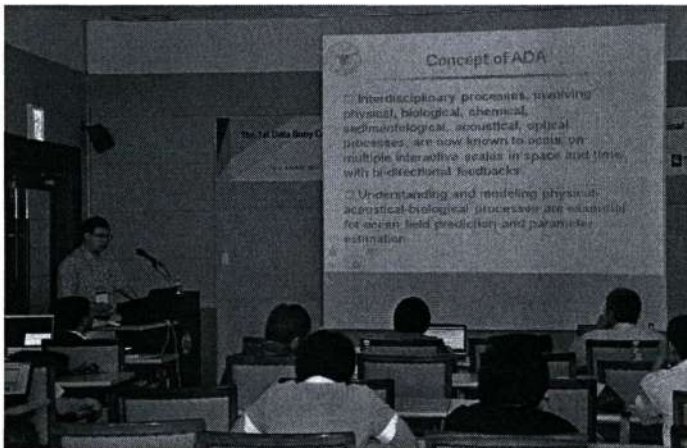
- **TINRO center, Russia**

US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WMO)

- 관련사진



<북태평양과 주변해역의 데이터부이 협력패널 전문가 훈련
및 교육1>



<북태평양과 주변해역의 데이터부이 협력패널 전문가 훈련
및 교육2>

2) '동아시아 해양의 지리적인 특질과 해양법'

- 일시: 2012. 8.20-21. 08:30~18:00
- 장소: 대만국립중앙연구원
- 주최: (사)이어도연구회, 대만국립중앙연구원, KOREA TIMES
- 주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수중지형 외 10건
- 참석인원: 약 40명
- 성과: 중국일본의 과도한 직선기선 적용을 해양법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인 해양갈등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원 오션 포럼(One Ocean Forum)결성 추진
- 세부일정:

* 2012. 9. 20

08:30-09:00	등 록
개 회 식	
09:00-09:30	아태지역연구센터 천공핀 환영사 이어도연구회 고충석이사장 환영사
기조연설	
09:30-10:15	주제: 연안국들은 지형지물에 대한 영유권을 어떻게 주장하는가? (영국 센트럴랭카셔대학 국제법 교수)
10:15-10:25	기념사진 촬영
10:25-10:35	Coffee/Tea Break
세션1: 국제법상의 지형적 특성	
10:35-12:00	사회: 존 차오(대만 국립정치대학교수) 주제발표: -로버트베크만(싱가폴국립대학 국제법연구소 소장) 간출지와 수중지형의 법적 지위 -마사히로 미요시(일본 아이치대학 국제법명예교수) 동아시아해의 영토분쟁의 함의 토론 : 저우커유엔
12:00-14:00	오 찬
세션 2: 동중국해에서의 해저지형과 해양경계획정	
14:00 -15:30	: 최연홍(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주제발표: -방호삼(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p>해저지형의 법적 지위</p> <p>-김현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해양경계획정에 있어 직선기선의 역할과 영향</p> <p>토론: 가오성티(국립대만해양대학 해양법학과 교수)</p>
--	--

* 2012. 9. 21

세션3: 동중국해의 지형지물: 법과 정치	
08:30-10:00	<p>사회: 류 푸쿠오(대만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p> <p>주제발표:</p> <p>-최연홍(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고충석(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암초와 섬 영토분쟁의 새로운 해결방안</p> <p>-강병철(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p> <p>이어도, 오키노토리시마와 국제정치</p> <p>토론: 천취천(국립정치대학 법학부 조교수)</p> <p>이창섭(코리아타임즈 논설주간)</p>
10:00-10:20	Coffee/Tea Break
세션 4: 남중국해의 지형적 특성과 해양법	
10:20-11:50	<p>사회:린청이(중앙연구원 구미연구소 연구교수)</p> <p>주제발표:</p> <p>-트란트루엥티이(베트남외교아카데미 원장)/웅웬티란안(베트남외교아카데미 부원장)</p> <p>남중국해의 섬과 해양영유권 주장</p> <p>-송옌웨이(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구미연구소 연구교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수중지형:해양법적 측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 분석</p> <p>토론: 왕관송(국립대만사범대학 정치학연구소 소장)</p>
11:50-12:00	<p>Closing Session</p> <p>아태지역연구센터 천콩핀 폐회사</p> <p>이어도연구회 고충석이사장 폐회사</p>

- 관련사진



<동아시아 해양의 지리적인 특질과 해양법1>



<동아시아 해양의 지리적인 특질과 해양법2>



<동아시아 해양의 지리적인 특질과 해양법3>

- 관련기사

아시아·태평양 : 국제 : 뉴스 : 한겨레

『한겨레』

전문가들 “영토분쟁 부른 모호한 유엔 해양법 고쳐야”

동아시아 갈등 해법 국제세미나
섬·암초 규정 애매해 자의적 해석
이어도·오키노토리섬 등 갈등
“무인도·암초는 근접 유인도 귀속”
참석자들 ‘새 원칙으로 삼자’ 제안



다오위타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중일간의 갈등은 자칫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질태세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 사이엔 이어도를 둘러싼 경계획정 및 영유권 논란이 몇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서 기인하는 민족주의적 갈등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섬의 영유권 내지 그와 관련한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의 해양 영토를 둘러싼 갈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이면에는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국가적 목표가 잠재돼 있는 것이다.

최근의 새로운 흐름은 이러한 영유권 분쟁이 한중일 세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에 중국이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핵심 이익’을 내세워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

의 동남아시아 각국과 마찰을 빚어 왔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영유권 분쟁은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이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면서 영유권 갈등은 미-일 대 중국의 패권경쟁과 중첩되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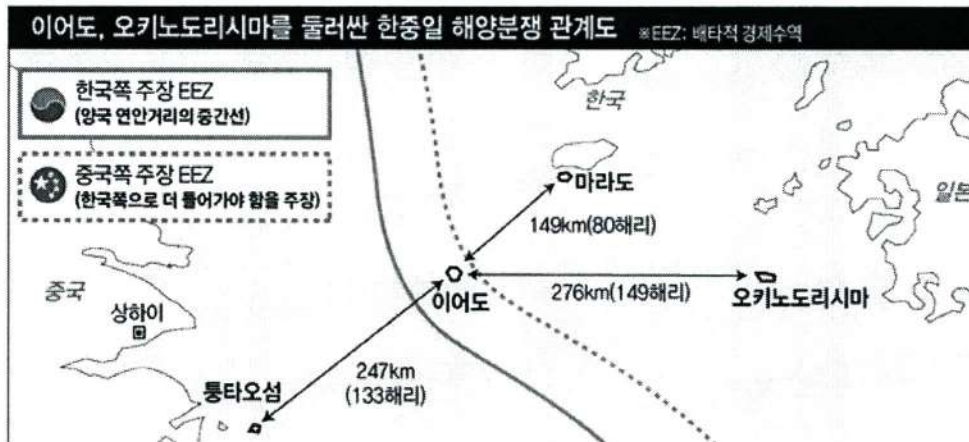
20~21일 타이베이 중앙연구원에서 열린<동아시아 해양의 지리적인 특질과 해양법>이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는 세가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하나는 최근 중일 등 동아시아 각국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유엔 해양법의 국제법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제주도에 근거지를 둔 한국의 이어도 연구회와 대만의 중앙연구원 아태지역연구센터(CAPAS)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어도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온 이어도연구회가 대만쪽과 공동주체로 세미나를 연 것은 대만쪽이 한중일의 영유권 분쟁에서 한걸음 물러나 공동의 협력을 모색하려는 자세를 보여왔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천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원을 아우르는 중앙연구원은 총통부 산하에 있는 대만 최고의 학술연구기관의 집합체다. 마지막으로 핵심 당사자라 할 중국쪽 참석자는 없었으나 이번 세미나에는 해양 분쟁의 직접당사자인 일본, 베트남 그리고 비교적 중립적인 대만과 해양법 분야에서 권위 있는 싱가포르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는 드문 자리였다.

해양법과 해양경계 획정을 둘러싼 갈등

유엔해양법 협약은 새로운 해양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전 세계 150여 국가가 참여해 체결한 해양에 관한 헌법으로 불린다. 해양법 협약이 체결된 것은 30년전인 1982년이었다. 그러나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건 1994년 11월 16일이며, 그 효력은 협약 당사국이 아닌 나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협약의 내용이 기존의 관습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성문화시킨 경우에는 협약당사국이 아닌 나라들에게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양법의 효력이 확대될수록 해양 관할권의 확대를 둘러싼 연안국 간 분쟁은 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연안국들이 영해의 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공해였던 해역도 주권 및 관할권 안에 들어가게 됐다. 해양자원의 가치 특히 해양에서의 에너지 자원개발이 본격화되자 이들 연안국들은 전통적인 영해개념의 3해리와 기존의 대륙붕 개념에 더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서 200해리까지 관할권을 확대하며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안국 간에 200해리경제수역의 해양경계가 서로 중첩되자 경계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둘째, 유엔해양법 협약이 불완전한하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커졌다. 특히 해양 경계획정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한 제3자 경계 확정 원칙도 일관성을 결여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섬과 암초의 기준이다. 현행 해양법 체제에서는 ‘수중암초’와 ‘암석’은 어떠한 해양 수역도 영유할 수 없으며 경제수역 획정을 위한 기선의 기점으로도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섬과 암초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게 됐다. 그러나 해양법 제121조는 암초의 기준을 “사람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이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했다. 방호삼 전남대 교수는 해양의 특질에 관한 법적 지위에 관한 발표에서 해양법의 이런 포괄성, 모호함이 갈등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은 쓸모없다고 방치했던 암초도 해양 과학 탐사기지 등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섬이라는 해양법적 지위를 얻으면 해양 경계확정의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 확정의 토대가 되는 기선 설정 방식에서도 다양한 해석의 차이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경쟁적으로 바다의 선긋기에 나서면서 각자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양법을 해석했다. 섬인가 암초인가, 섬이라면 그 섬의 영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등을 놓고 동아시아는 해양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오키노토리시마를 둘러싼 섬과 암초 논쟁

우리의 이어도와 비교되는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는 섬과 암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대표적인 예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지점에 위치한 산호초인 오키노토리시마는 대부분 물에 잠겨 있으며 만조 때 바위 2개가 수면 위로 70cm 정도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수중 암초인 이어도와는 다르다. 그러나 그 바위 2개의 면적은 약 10㎡에 불과하다. 일본은 이 조그만 바위를 '섬'이라며 개발에 나섰다. 콘크리트 방파제를 설치한 다음 헬기장과 관측소를 만들었고,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유엔에 공식적으로 섬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를 일본의 최남단 섬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토 면적(약 38만km²)의 66%에 이르는 25만km²의 대륙붕을 설정했다. 이는 중국과 결정적으로 마찰을 빚어 왔다. 중국의 입장은 오키노토리시마는 암초이며, 암초는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는 해양법 규정에 입각해 대륙붕이나 경제수역 설정의 기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이어도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이어도는 해수면 아래 5m 아래 가라앉아 있는 수중 암초다. 그럼에도 이어도라는 섬으로 불려왔다. 제주도 전설 속에서 어부가 죽으면 가는 '환상의 섬'이라고 불리어 왔기 때문이다. 그 이어도가 전설이나 민요에서만 존재하는 섬에서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해역이 된 것은 1951년 국토규명 사업의 일환으로 탐사가 진행되면서였다. 1970년 이어도 해역을 제7광구로 편입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제정됐고, 95년부터 2003년에 걸쳐 해양과학기술을 건설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이어도를 섬이 아닌 수중 암초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도에 관측기지를 설치하자 중국은 일본처럼 인공섬으로 만들어 영유권화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중국은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 걸쳐서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존재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2011년 7월엔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냄으로써 분쟁화했다.

이어도나 오키노토리시마를 둘러싼 이런 갈등은 자원 개발의 권리를 둘러싼 이해대립 이외에도 군사전략적 관점도 작용하고 있다. 강병철 이어도 연구회 연구위원은 이어도 오키노토리시마와 국제정치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은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명백히 반대하고 있으나, 대만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해군의 활동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미 해군의 대만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안보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는 중국의 안보적 이해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중) 암초와 섬을 둘러싼 해양법적 해석을 주제로 발표한 로버트 베크먼 싱가포르국립대 해양법 교수는 “해양법 협약에 의하면 간출지(썰물때 드러나고 밀물때 잠기는 땅)와 수중 지형은 영유권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인공 섬으로 만들거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등 상대국가가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이나 대륙붕 권리 주장을 하는 수역과 겹치게 된다면 해양법에서 인정하는 섬으로서의 영유권 주장 등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인공섬을 만든다고 해서 논란을 피할 수는 없으며 당사국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어도를 섬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의 중첩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간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회장은 ‘암초와 섬의 영토 분쟁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란 발표를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고대 중국의 문화제국주의 망령이 바다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무력 충돌의 위협에서 각국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양법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람이 살수 없는 무인도, 수중 암초는 거기서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한다”는 원칙을 새로운 해양법 원칙으로 삼자는 것이다. 고 회장은 동남아의 나라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접성의 원칙도 사실 이 제안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원칙을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경제수역이 중첩될 경우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경계확정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고 회장은 두가지 원칙은 서로 보완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으며, 어떤 원칙을 적용해도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권리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도는 한국의 남해 대륙붕에 위치하며 마라도에서 중국보다는 75해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최연홍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도 “17세기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독도가 조선에 가까우니 조선의 섬이라고 선언했고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는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속될 때 다오위타이(센카쿠) 섬을 함께 진상하려고 했으나 이 섬이 중국(대만)쪽에 가깝다며 정중히 거절했다”면서 “무인도나 수중 암초의 경우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이어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것이고, 해양법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경제적 목적이든 아니든 해상도시나 해상공항 등 여러 목적의 인공섬과 대규모 시설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 해저자원의 탐사와 개발, 보존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측기지 건설은 한국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송연혜이 타이완중앙연구원 아태지역연구소 연구교수는 “이어도(국제적 명칭:소코트라)에 대한 중국의 해양 권리와 영유권 주장에는 명확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동중국해

에 위치한 이어도에 대한 갈등 해결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은 영토 영유권에 관하여 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암초를 둘러싼 관할권을 두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확정의 방법과 목적을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74조와 83조에 의거한 해양 경계 확정안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2006년부터 한국과 중국은 16차례의 회담에도 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 교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수많은 해역에서 중국이 영유권과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라면서 "이들 바다에서 긴장을 감소시키고 평화를 유지할 책임과 능력이 중국에 있는 만큼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해양 관할권 확대

중국과 일본의 영해기선이 경계확정에 끼치는 영향과 영유권 분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김현수 인하대 교수(국제법)는 해양법 협약의 근본정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두나라는 해양에서의 자원 확보 및 영유권 확장 등을 목적으로 자국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해양법 협약의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 심지어는 일방적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직선 기선을 사용하여 해양 관할권 확장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해양수역 측정의 기준선이 되는 기선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심각한 국가이기주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 교수는 이에 따라 경계확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중국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스포라틀리얼도(난샤군도)를 두고 중국과 분쟁상태에 있는 구엔 티안란 베트남 외교 아카데미 남중국해연구소 부소장은 무리한 관할 수역 확대를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이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섬들 주변에 지나칠 정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법 해석과 적용은 해양법을 왜곡하고, 국가간에 큰 착각을 만들어냈으며 국가간 충돌 해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스프래틀리얼도(난사군도)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200해리가 아닌 12해리만을 갖게 하는 것이며, 인접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이를 분쟁해결의 지침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큼 현명해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베이/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제주인뉴스』 2012. 9.27

이어도 수호 위하여 고충석 이사장 '원오션포럼' 출범

양금희 기자, 2012-09-27 오후 04:53:11



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는 총통부 산하에 있는 대만 최고의 학술연구기관으로 1천여 명의 석박사급 연구원을 두고 있는 대만중앙연구원의 아태지역연구센터(CAPAS)와 공동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세미나 폐막에 앞서 중국이나 일본이 유엔해양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직선기선 적용을 해양법적으로 검토하고 비판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자 평화적인 해양갈등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원오션포럼'(하나의 해양, One Ocean Forum)을 제안하였다. 국제학술회의의 참석한 학자와 해양전문가들은 중국의 억지주장이나 논리를 제어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이론을 개발하고 평화적인 해양갈등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원오션포럼'(하나의 해양, One Ocean Forum)을 구성키로 합의하였으며 이어도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사무국을 설치하고 출범하여 2013년도부터 '원오션포럼'(One Ocean Forum)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제주인뉴스 양금희기자>

(2) 국내학술대회

1) '1984년 이어도탐사회고 집담회'

- 일시: 2012. 6. 1 12:00~18:00
- 장소: 라마다프라자 호텔
- 주최 및 주관: (사)이어도연구회, 조성윤제주대학교수연구팀
- 주제: 1984년 이어도 탐사부터 이어도 기지의 건설까지 외 3건
- 참석인원: 20명
- 성과: 이어도 및 해양전반에 대한 학문자료의 구축, 이어도 탐사회고를 통한 이어도 학술적 가치 조명
- 세부 일정

시간	항목	주 제	발표자(소속)
13:00 ~13:30	등록 및 인사말	인사 및 집담회 개최 취지 안내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전 제주대학교 총장)
13:30 ~15:50	1부 주제발표	1984년 이어도 탐사회고를 통한 이어도 학술적 가치 조명	# 사회 : 이병걸 제주대 교수 1. 노홍길(전 제주대 교수) 2. 심재실(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 부장)
		1984년 이어도탐사 영상물 제작 및 탐사경험 회고	1. 서정용(DBS제주방송 총국장, 이어도탐사 취재반) 2. 장순호(전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이어 도탐사 부대장, 전 제주시 5대의원)
15:50 ~16:00	Coffee Break	휴 식	
16:00 ~18:00	2부 종합토론	# 사회 : 조성윤 제주대 교수 # 토론자(가나다 순) 1. 곽상필(전 제주신문 기자, 이어도탐사 취재반) 2. 노홍길(전 제주대 교수) 3. 서정용(DBS제주방송 총국장, 이어도탐사 취재반) 4. 심재실(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장) 5. 장순호(전 한국해양소년단 제주연맹 이어도탐사 부대장, 전 제주시 5대의원) 6. 최인덕(제주도체육회 이사, 당시 이어도탐사 참여)	

- 관련사진



<1984년 이어도탐사회고 집담회1>



<1984년 이어도탐사회고 집담회2>



<1984년 이어도탐사회고 집담회3>



<1984년 이어도탐사회고 집담회4>

2) '한중해양경계획정과 이어도'

- 일시: 2012. 4. 17 09:00~12:00
- 장소: 롯데호텔 37층 가네트홀
- 주최: (사)녹색성장해양포럼
- 주관: (사)이어도연구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주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가치와 역할 외 2건
- 참석인원: 약 30명
- 취지: 이어도 주변 수역을 포함한 서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 촉구

시 간	내 용
9:00~9:20	사 회 장영태(녹색성장해양포럼 운영위원장,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개회사 홍승용(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9:20~10:20	제1세션 : 한중해양경계와 이어도 현황
	사 회 이석우(한국해양연구원 연구위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가치와 역할 심재철(한국해양연구원(KORDI)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책임연구원) 한중해양경계획정과 이어도의 국제법적 평가 김부찬(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前)대한국제법학회장) 한중간 해양경계획정 교섭현황과 이어도 문제 김선표(외교통상부 국제법불국 심의관)
10:40~12:00	제2세션 : 종합토론 - 한중해양경계와 이어도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사 회 홍승용(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토 론 강정극(한국해양연구원(KORDI) 원장) 고충석((사)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전(前)제주대학교 총장) 김달중(한국해양연구원 명예회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아태안보협력이사회 공동의장) 김영원(외교통상부 대사, 전(前)주 네덜란드 대사) 김학소(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D)원장) 백진현(한국해양연구원 회장,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국제해양법재판 소 재판관) 송근호(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소장) 정재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관련사진



<한중해양경계획정과 이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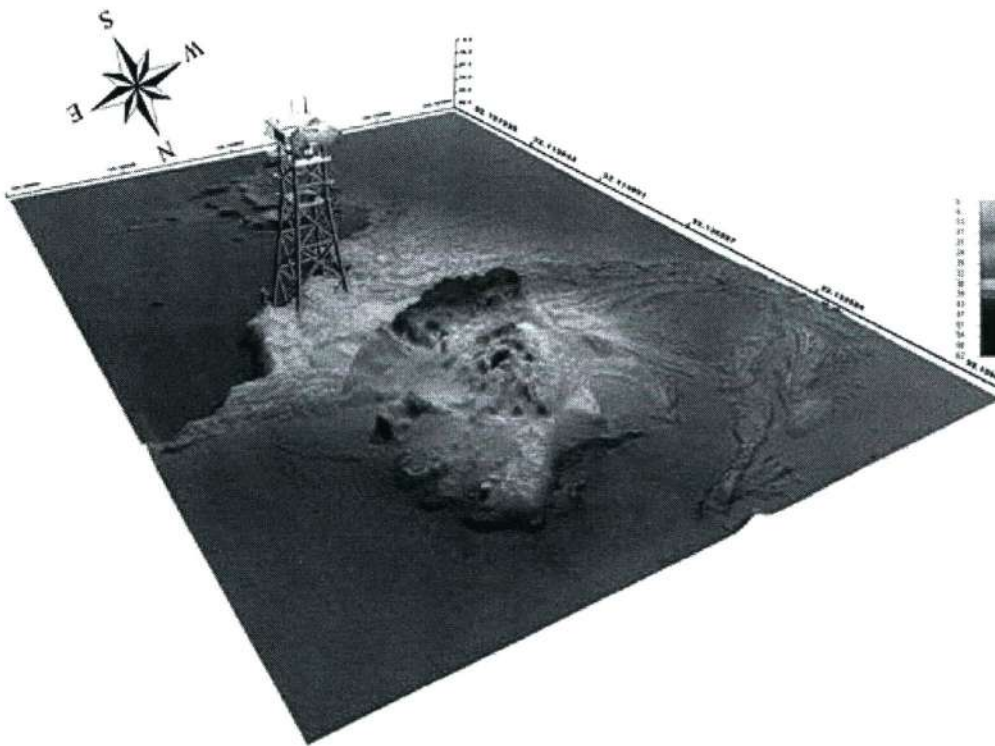


<한중해양경계획정과 이어도2>

『부산일보』 2012. 5. 3.

이어도 문제가 본격 외교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중간 오랜 외교현안인 이어도 주변 수역을 포함한 서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을 촉구하는 학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사)녹색성장해양포럼(회장: 홍승용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세계해양포럼 공동의장)은 지난 4월 17일(화) 오전 9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7층 가네트홀에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연구원(KORD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사)이어도연구회 등 관련 주요 연구기관과 학회와 공동으로 '한중해양경계획정과 이어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해저지형 단면도

이날 학술대회는 지난 3월 3일 중국 국가해양국장의 “이어도가 중국의 정기순찰 대상 해역에 포함된다”는 인터뷰 이후 핵안보정상회의 직전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과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처음 열린 민관학계전문가의 집중토론회여

서 주목을 받았다.

대회에서는 한중 간 최첨단 외교현안인 이어도 주변 수역을 포함한 서해에서의 해양경제획정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의 마련 등이 대거 의제로 쏟아져 긴장감을 더했다. 참가한 참가자들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증강해온 해군력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하는 소위 ‘도련전략’의 추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석우 한국해양연구원 연구위원(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제1세션은 한중해양경계문제와 이어도 현황에 주력했다.

먼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사업에 참여한 심재설 박사(한국해양연구원(KORDI))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가치와 역할’ 등의 발표를 통해 이어도 기지의 개요와 입지의 중요성을 비롯, 기지 건설 과정과 연구활동과 성과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어서 김부찬(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前) 대한국제법학회장)의 ‘한중해양경제획정과 이어도의 국제법적 평가’는 해양경제획정의 원칙과 한중간 경제획정의 문제 이어도의 국제법적인 평가와 과제를 제시해주었다.

김선표(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심의관)은 ‘한중간 해양경제획정 교섭현황과 이어도 문제’를 통해 한중 간의 경제획정의 외교적 문제를 짚었다.

중국의 해양공정, 이어도 표적

현재 한반도 선단 해역의 해양관측망은 이어도 기지를 위시해서 백령도 기지, 서해중부부이, 가거초 기지, 독도 기지 등 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어도는 중국 측 서산다오보다 한국 남단 마라도에 138km나 가깝게 위치한 종합해양과학기지. 지난 2003년 준공되었으며 등대와 33종류의 관측 및 통신탑과 담수 탱크를 갖추고 있다. 총 면적은 400여 평, 총 높이는 수중 암반으로부터 76m(수상 36m)다. 이곳에서 한국해양연구원 직원들이 2~3개월에 한 번씩 1주일 정도 머물면서 관측장비 점검작업을 벌인다.

이어도는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은 남편이나 아들이 살고 있는 전설의 섬으로 간주돼 왔다. 평상시 상황에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지만 수심 50m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남북으로는 약 1,800m, 동서로는 1,400m로 면적은 약 20만㎡에 이르러 축구장 260개의 크기에 이른다.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좌초하면서 소코트라 바위로 알려졌는데 대한민국 경제활동의 핵심 통로다. 한국 총 수출입 물량의 90% 가량이 이어도 남쪽 해상을 통과한다. 연간 수십만 척 상선이 통항, 특히 천연가스와 석유 수입량의 99% 이상이 이어도 해역을 지난다. 안전항로 확보를 위한 등대의 설치가 필수였다.

이곳은 황금어장으로 수산자원도 풍부하다. 주변 해역에선 다양한 어류가 발견된다. 쿠

루시오 해류와 서해한류, 중국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물이 서로 교차하고 있어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이어도가 속한 250해구에서 참조기, 갈치, 붕장어 등 14종의 어류가 채집됐다. 이어도는 현재 4광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대엔 최대 1,000만 배럴의 원유와 72억t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0~2008년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의 54%(26개)가 이어도 반경 150km를 통과했고 약 10시간 뒤 남해안에 도착했다. 이어도에서의 태풍의 규모나 경로 등에 대한 예보를 통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기환경연구에 최적의 위치인 것이다.

이러한 이어도의 가치를 모를 리 없는 중국 역시 동중국해의 황금어장에 눈독을 들이고 제4광구의 매장 석유와 가스에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 중국은 최근 들어 해양 세력을 강화하면서 해양공정의 한 축으로 이어도 공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이다.

한중해양경계획정과 이어도 학술대회 해양경계획정 치밀한 전략 필요



현재 한중 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은 단지 어업질서만을 규율해 '잠정약정'(provisional arrangement)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어업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 EEZ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두 나라간 해양경계획정 원칙 및 그 적용에 관한 입장 차가 커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이 14차례나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15차 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륙붕협약의 제6조

와 유엔 해양법 협약의 제74조 및 83조 조문이다. 이 가운데 대륙붕협약은 '공동대륙붕'의 경우 경계확정은 당해국가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 한다고 밝히고 만일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중간선'으로 그 경계를 정하지만 대륙붕을 공유하는 인접국 간에는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비해 유엔 해양법협약(LOSC)은 합의에 의한 해양경계확정을 지지하면서도 지난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확정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중간 대륙붕 획정의 협상에서 '등거리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며, '중간선'을 적용할 때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은 거리가 훨씬 가까운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자세다. 반면에 중국은 단순한 거리 개념에 따른 '등거리 원칙'보다는 해저지형이나 해안선 길이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는 '형평의 원칙'을 선호해 왔으며, 제반 '관련 사정'을 바탕으로 황해 및 동중국해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금번에 현안으로 떠오른 이어도의 경우 수중 4.5미터 아래에 있는 수중암초다. LOSC에 따르면, 이어도 기지와 같은 인공섬은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섬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 및 효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제 해양법 학계에서는 한중 간 갈등과 마찰은 이어도 내지 그 주변수역, 그리고 EEZ 내 인공시설 및 구조물인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운영을 둘러싼 EEZ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 및 관할권 또는 해양관할수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 통례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외국 선박과 항공기 통행을 허용하는 것 말고는 영해나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영해가 침실이라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거실"이라면서 "거실은 이웃과의 사교나 접객용도로도 쓰이지만 주택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이어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토 분쟁'과 다를 게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향후 국제법상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이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양경계확정 협상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설치 운영에 대한 우리의 배타적 권리 및 관할권의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현안 토론 열기 후끈

해양경계확정시 우리의 입장에서 협상하여야 일관된 교섭력이 생기게 된다. 중국의 의도를 분석하면, 중국의 해양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우리의 경우 가상 중간선

안에 이어도를 포함시키고 과학기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뿐 아니라 역내 국가에도 해양자료 제공 등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어 홍승용 회장의 사회로 '한중해양경계와 이어도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는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강정극 (한국해양연구원(KORDI) 원장),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백진현 (한국해양연구회 회장,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송근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소장), 고충석 ((사)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전(前) 제주대학교 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KORDI의 강정극 원장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목적은 첫째, 해양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조물 구축. 둘째, 주변국 국민들에게 해양 기상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하며 이어도 과학기지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 덧붙여서 그는 "중국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10여년 전부터 해당해역에서의 과학조사(특히 지질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경계 획정 협상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 이어도연구회의 고충석 이사장은 "이어도 문제가 향후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본다"면서 동북공정에 이은 '이어도공정'을 예상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어도 문제는 인문학적, 역사학적, 자연과학적, 해양법적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면서 "최근 국토해양부에 '해양영토과'가 신설되었지만, 중국은 이미 2009년 외교부 산하에 해양영토에 관한 전담조직이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최남단의 마라도에 '이어도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사업으로 지적되었다.

△ 한국해양연구회 김달중 명예회장은 "보수적 시각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의도는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미국에 대한 전략,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 등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독자적 방어, 역지능력을 충분히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소프트한 보수적 시각에서는 미국의 견제세력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인도 등도 상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해양력 증강정책과 연계된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중요성, 해양거버넌스의 필요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외교통상부의 김영원 전 대사는 "해양경계획정 시 우리의 입장에서 협상하여야 일관된 교섭력이 생기게 되며 타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중국의 의도를 분석하면, 중국의 해양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우리의 경우 가상 중간선안에 이어도를 포함시키고 과학기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뿐 아니라, 역내 국가에도 해양자료 제공 등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전략적 접근법을 강조했다.

△ KMI의 김학소 원장은 “이어도는 유엔해양법상 ‘수중암초’로써 해양경계획정이 해결책이며 동해역은 EEZ 대륙붕 문제, 어업권 문제, 반공식별구역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는 “중국 극우주의자들의 무력점거 등에 대하여 해군과 해경에서 항상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협력방안으로는 중국에 어느 정도의 어업권을 보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백진현 재판관은 “1997년부터 중국과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교섭하고 있지만 중국과 교섭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제3자에 의한 해결방안 즉, 교섭이 안 될 경우 강제재판이나 강제교섭이 차라리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비슷한 경우인 미얀마-방글라데시의 벵골만 사건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송근호 소장은 “바다지식, 바다경영, 바다를 지키는 힘이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이어도의 가치는 과학적, 자원적, 안보적, 지정학적 등의 가치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지난 1995년 장쩌민이 ‘해양강국, 대양해군’ 기치를 내걸고 국제관함식을 거행하면서 해군력의 비약적 증강을 추진하여 왔고, ‘도련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소장은 “이어도 과학기지는 국제사회에 해양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부분을 홍보하여야 하며, 고성능 영상장비 등을 장착하여 불법적 행동, 테러, 점거에 대한 감시·경계강화 등 기지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해양영토관리기본법 제정, 대청도·어청도 등에 해경 전진기지 건설 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제기되었다.

△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해산물동량이 97% 이상이기 때문에 이어도 문제는 해로의 문제”로 규정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통킹만 경계획정 시 베트남은 끈기 있는 협상력을 발휘해 베트남이 면적상 약 6%의 이익을 보았다”고 전했다. 이어도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며, 생활 속의 이어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색성장해양포럼 홍승용 회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해양관련 국가적 현안에 관한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SEA&강승철기자ds5bsn@busan.com

(3) 국내전문가 워크숍

1) 세계 수로의 날 기념 전문가 워크숍 -세계 수로의 날과 해양영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

- 일시: 2012. 6. 21
- 장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최 및 주관: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사)이어도연구회, 한국수로학회, 한국해양조사협회, 동해연구회, 인하대학교
- 주제: 동해 표기의 현황과 향후과제 외 5건
- 참석인원: 50명
- 성과: 이어도 쟁점 및 해양주권 강화방안, 세계 수로의 날의 의미와 수로학회 역할, 해양영토 갈등사례와 정책방향 논의
- 행사일정

시 간	항 목	내 용	참석자(소속)
08:30 ~ 09:00		등 록	
09:00 ~09:30	개회식	개회사	고충석((사)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최창섭(국립해양조사원) 이기석(동해연구회 명예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김대철 (한국수로학회 회장, 부경대학교 교수)
10:40 ~11:25	세션1 -주제발표	동해 표기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어도 쟁점 및 해양주권 강화방안 세계 수로의 날의 의미와 수로학회 역할	주성재 (동해연구회 부회장, 경희대학교 교수) 강병철(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 최윤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1:25 ~ 11:30	휴 식	coffee break	
11:30 ~12:00	세션2 -발표 및 토론	해양영토 갈등사례와 정책 방향 국립해양조사원의 국제 수로협력 활동	임관창(국토해양부) 심문보(국립해양조사원)
12:00 ~12:10	휴 식	coffee break	
12:10 ~13:00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미래를 위한 제언	# 사회 : 고충석(이어도연구회 이사장) 김영배(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김용환(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송성대(제주대 명예교수,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유동근(지질자원연구원) 정 현(국토해양부) (가나다순 정렬)

- 관련사진



<세계 수로의 날과 해양영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1>



<세계 수로의 날과 해양영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2>

2) (사)이어도연구회-KMI 공동 전문가 워크숍

-일시: 2012. 11. 2

-장소: 제주상공회의소

-주최 및 주관: (사)이어도연구회, KMI

-주제: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 외 2건

-참석인원: 10명

-취지 및 성과: 이어도 및 해양전반에 대한 학문자료의 구축, 해양 관련
인재양성, 해양분쟁에 대비한 민간 차원의 이론적 토대 마련

-세부일정:

시 간	항 목	내 용	참석진
09:30 ~ 10:00		등 록	
10:00 ~10:20	개회식	개회사	고충석(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윤진숙(KMI 해양연구본부장)
10:20 ~11:20	주제 발표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	이창열(KMI 전문연구원)
		해양경계획정과 제3자의 소 송참가	최지현(KMI 전문연구원)
		이어도 쟁점과 이어도연구 회의 역할	이정원 (이어도연구회 연구원)
11:00 ~11:20	종합 토론	발표토론 및 양 기관 발전방안 논의	강병철 (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 김민영 (이어도연구회 연구원) 박영길(KMI 전문연구원) 박지영(KMI 전문연구원) 윤진숙(KMI 해양연구본부 본부장) 최영석(KMI 전문연구원) * 가나다 순 정렬

- 참석자명단

소 속	직 합	이 름	비 고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고충석	
	연구위원	송성대	
	연구실장	강병철	
	연구원	이정원, 김민영	2명
KMI 해양연구본부	본부장	윤진숙	
	전문연구원	박영길, 박지영, 최영석, 이창열, 최지현, 김윤화, 이현경	7명
	직원	김정희	
합 계		14명	

- 관련사진



<(사)이어도연구회-KMI 공동 전문가 워크숍1>



<(사)이어도연구회-KMI 공동 전문가 워크숍2>



<(사)이어도연구회-KMI 공동 전문가 워크숍3>

(4) 이어도 아카데미 개최

1) '2012 이어도해양아카데미' - 미래해양전문가 리더십과정 제 4기

-일시: 2012. 6. 17 ~6. 19.

-장소: 제주

-주최: (사)이어도연구회, 한겨레교육문화센터

-주제: '소리없는 바다의 전쟁' 외 3건

-참석인원: 약 40명

-취지 및 성과: 교육현장에서 유용할 이어도 및 해양관할권 수호에 관한 지식을 제공, 교육일선의 교과목에서 배제되어 있는 해양학 전반의 이해를 토대로 교사들의 교수활용 능력을 증진

6/17(일)		6/18(월)		6/19(화)	
		08:00	조식	08:00	조식
		08:50	모슬포항 이동 및 승선준비	09:00~11:00	이어도특강④ (해양문화)
09:30	김포공항_항공권 개별인수/탑승	10:00	마라도행 여객선 출항		
10:15	아시아나항공 출발	10:30~12:00	마라도 순례 (국토최남단비, 마라도등대, 바다신당)	11:00~11:30	수료식
11:40	답사버스 집결 (제주공항7번주 차장)			11:30~12:00	체크아웃
		12:30	모슬포행 여객선 출항	12:00	이동
12:00	중식	12:40	중식	12:30	중식
13:30	김녕 도맷불(옛등대)	14:00~16:00	이어도특강② (해양법)	13:30	사계리 사람발자국화석 (천연기념물제464호)
14:30	하도리 제주해녀박물관			14:30	송악산일본군해안 진지 (제주도문화재제31 3호)
16:00	이동				
17:00	새섬올레 (설섬,문섬,범섬)	16:00~18:00	이어도특강③ (해양과학)	15:00	일본해군알뜨르비 행장 (근대문화유산제39 호)

				16:00	구엄리 소금빌레
18:00	이동 및 석식				
19:30	숙소배정	18:00~19:00	석식	16:40	이호해변 테우(자리배), 원(垣), 조랑말등대
20:00~22:00	이어도특강Ⅱ (해양정책)	19:00~21:00	집담회 (이어도와 21세기 바다의 미래)	17:30	제주공항_항공권 개별인수/탑승
				18:55	아시아나항공 출발
“북서태평양의 각별한 섬으로 떠나는 제주기행”(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 전일정 동행)					

2) ‘해양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이어도해양아카데미’ - 교사직무연수과정

- 일시: 2012. 7. 25 ~8.1 10:00~19:50
- 장소: 서울, 제주
- 주최: (사)이어도연구회, 한겨레교육문화센터
- 주제: 동북아시아의 해양정책과 이어도 외 8건
- 참석인원:약 30명
- 성과: 국토최남단 마라도 및 제주해양유적탐방을 통해 제주문화의 해양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남방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교사의 역할과 21세기 해양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
- 일정

<서울연수>							
날짜 \ 교시	0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09:30 ~ 09:50	10:00 ~10:50	11:00 ~11: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제 1일 (7월 25일)	개강식	해양정책 -동북아시아의 해양정책과 이어도	해양주권 -동북아 해양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		해양지질 -쓰나미의 이해와 대응방안		
		고충석	김영구		신성원		
제 2일 (7월 26일)		해양경제 -해양산업의 현실과 미래	해양공학 -이어도종합해양과 학기지의 역할과 해양관측시스템		해양전략 -동북아 해양패권경쟁의 현실과 전망		
		김춘선	이병걸		문정인		

제 3일 (7월 27일)		해양법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		해양환경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해양사 -해양강국의 발자취와 미래해양전략			
		김현수		제종길		주강현			
<제주연수>									
교시 날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09:00~09:50	10:00 ~10:50	11:00 ~11: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7:00 ~17:50	19:00~19:50
제 4일 (7월 30일)					전통수산업의 이해 및 어로민속 답사				
					이기복				
제 5일 (7월 31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순례 및 해양유적지 탐방 (특강. 이어도와 환태평양해양전략 / 근대해양문화유산의 의미)								집담회
	주강현								
제 6일 (8월 01일)	해양문화 -제주해민문화의 원류와 이어도토포아		폐강	희망자에 한해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혼인지 등 일반관광					
	송성대								

-강사소개

구 분		성 명	직 급	학 위	주요활동내용
과정명	과 목 명				
해양주권의 식 함양을 위한 이어도해양 아카데미	해양정책 -동북아시아의 해양정책과 이어도	고충석	제주대 교수	행정학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대학교 총장 역임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역임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제주특별 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학회 상임이사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국제평화재단(제주평화연구원) 이사
	해양주권 -동북아 해양 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	김영구	려해연 연구소 소장	국제법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해양대 교수, 박물관장(전) -해군대학 교수, 부설전략연구소장(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전) -한국해군 법무차감(전) -저서: 『독도영토주권의 위기』(2006), 『 21세기 국제사회의 이해』(2003), 『독도 문제의 진실』(2003), 『한국과 바다의 국 제법』(1999) 등 10여 권 -논문: 「독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 장의 재정립」(2002),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현대 국제 판결 」(2001),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와 한국의 해양주권」(1998), 「한일 대륙붕 경계문제 에 관한 법적 고찰」(1998), 「한중간의 EEZ경계획정에 관한 연구」(1996) 등 50 여 편

해양지질 -쓰나미의 이해와 대응 방안	신성원	관동대 에너지 플랜트 학과 교수	해양 공학 박사	-한양대 지구해양과학과 졸업 -해군사관학교 해양학과장 역임 -오레곤주립대학교 Hinsdale과량연구소 선임 연구원 역임 -논저: 「세계 최고의 재해방비 대국, 일본의 눈물과 좌절」(2011), 「Laboratory measurements of void fraction and turbulence in the bore region of surf zone waves」(2003) 외 다수
해양경제 -해양산업의 현실과 미래	김춘선	인천항 만공사 사장	경 제 학 석사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무차장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장, 어업자원국장, 인 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정경제부 경제홍보과장, 경제정책과장, 국 무조정실 재정금융심의관 -한국장학재단 전무이사 등 역임
해양공학 -이해도종합 해양 과학 기 지의 역할과 해양 관측 시 스템	이병걸	제주대 교수	해양 환 경학, 토 목 공학 박사	-제주대학교 이어도연구센터장 -일본 에히메대학 토목공학과, 동경대 동지나 해 해양공동탐사 공동연구원 -논문: 「위성영상 및 해양관측을 통한 이어도 주변의 표층 및 저층 수온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2010), 「Landsat TM 영상을 이용한 제주도 도심지역 지표면온도분포와 식생지수 의 상관성 분석」(2009), 「제주시 해안경관을 고려한 해수인수관 관리방안」(2006), 「거리 및 구조물측량에서 GPS의 실시간 이동측량과 정지측량기법에 관한 연구」(1999) 등 40여 편
해양전략 -동북아시아 해양패권경쟁 의 현실과 전망	문정인	연세대 교수	정 치 학 박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통일연구원장 -대통령자문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 -한국평화학회 회장, 미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등 역임 -논저: 「경쟁과 공존」(2011), 「동북아시아지 역공동체의 모색」(2007), 「21세기 평화학」 (2002), 「중국의 내일을 본다」(2010), 「국가 전략의 대전환」(2001), 「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2000) 등 100여 편의 논문과 저 서가 있음

	해양법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 문대학 원 교수	국제 법학 박사	<p>국가지명위원회 위원, 한국해사법학회 부회장</p> <p>-해군사관학교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역임</p> <p>-저서: 『국제법』(2012), 『해양법각론』(2011), 『유엔해양법해설서』(2009) 외 다수</p> <p>-논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분쟁해결제도」(2011), 「유엔해양법협약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2010), 「2008년도 대륙붕한계위원회 문서제출 사례분석 및 평가」(2009), 「대륙붕한계 문서제출 사례분석 및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2008) 외 다수</p>
	해양환경 -기후변화 와 해양생태계	제종길	도시와 자연연 구소 소장	해 양 생 태 학 박 사	<p>-기후변화행동연구소 고문, 해양생태관광협회 부회장</p> <p>-한국해양연구원(KORDI)책임연구원 역임</p> <p>-제17대 국회의원, 국회 바다포럼 대표, 기후변화포럼 대표 역임</p> <p>-저서: 『바다와 생태이야기』(2007), 『우리바다 해양생물』(2002), 『이야기가 있는 제주바다』(2002) 외 다수</p> <p>-논문: 「황해의 해양생물다양성과 연안환경관리방안」(2003), 「해양보호구역: 그 현황과 관리문제점」(2003), 「제주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해안서식지와 저서동물 다양성 조사보고」(2002), 「갯벌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고찰(1988) 등 60여 편</p>
	전통수산업 의 이해 및 어로민속 사	이기복	이 어 도 연 구 회 해 양 연 구 센 터 연 구 기 확실장	해양 사학 박사	<p>-국립수산물과학관 큐레이터,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지원단 한국수산회 담당관, 해양문화재단 전임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체험학습교재 감수위원 등 역임</p> <p>-저서: 『한국의 갯벌』(2008),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2007), 『유리판에 갇힌 물고기』(2004), 『서산의 해양민속과 민중생활사』(2004) 외 다수</p> <p>-논문: 「일제하 어선동력화 추이와 조선의 수산업」(2010), 「어민 구슬로 본 가로림만의 어업문화경관」(2006), 「후리어법의 역사와 민속」(2006), 「조석·조간대와 어업생산풍습」(2003) 등 20여 편</p>

	해양사 -해양강국의 발자취와 미래해양전략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	국문학, 문화재 학박사	-해양문화연구원장 -국토해양부 해양정책자문위원 -2012여수세계박람회 BIE파리실무위원(해양 수산부), 주제개발위원, 전략기획위원 -(사)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 -한국역사민속학회, 통일문화학회 -저서: 『제주기행』(2011), 『상하이세계박람 회』(2010), 『인디언의 바다』(2010), 『독도견 문록』(2008), 『적도의 침묵-해양문명의 교차 로, 적도태평양을 가다』(2008), 『등대-제국 의 불빛에서 근대의 풍경으로』(2007), 『100 가지 민족문화상징사전』(2007), 『돌살-신이 내린 황금그물』(2006),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2005), 『우리문화의 수수께끼』(1996) 등 40여 권 -논문: 「해양권역의 재인식과 태평양지역연 구로의 전환」(2010), 「언어생태전략과 민속 지식의 문화다양성」(2010), 「사쓰마와 조슈 의 바다공간적 상징성-두 공간의 해양사적 전개와 조선침략」(2008), 「동아시아해양과 해양신앙-한중일 삼국의 해양문화사적 교섭 관계」(2006) 등 100여 편
	국토 최남단 마라도 순례 및 해양유적지 탐방				
	해양문화 -제주해민 문화의 원류와 이어도토피 아	송성대	제주대 명예교수	지리학 박사	-제주대 대학원장, 탐라문화연구소장, 중등교원연수원장 역임 -논문: 「제주인, 바다, 그리고 아나키공동체 」, 「제주 海民들의 이어도토피아」, 「풍수지리 연구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일고」 외 다수 -저서: 「제주인의 해민정신-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2001), 「정신문화의 지리학적 요해 」(1997)

『한겨레』 2012.4.30

이어도 전설이 아닌 현실로 만난다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미래해양전문가 리더십과정’ 6~7월 열려

해양 영토 문제가 국가적 의제가 되면서 ‘전설의 섬’에서 ‘해양 영토의 꼭짓점’으로 위상이 바뀐 이어도를 제주도 현지에서 이해하는 답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와 한겨레교육문화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립해양조사원과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하는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미래해양전문가 리더십과정’이 6월과 7월에 열린다.

이어도 해양아카데미는 미래의 해양 영토 주권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이어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일찌감치 이어도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이어도 특강과 제주도 곳곳과 마라도 일대에서 이뤄지는 현지답사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먼저 대학(원)생과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제4기 이어도 해양아카데미는 6월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동안 제주도 현지에서 답사와 특강으로 이뤄진다. 왕복항공료와 숙식비를 포함한 수강료는 16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교사직무연수과정은 7월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신촌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들은 뒤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2박3일 동안 제주도를 현지답사한다. 연수비용은 무료이며, 왕복항공료 2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두 과정 모두 제주도 답사 일정은 민

속학자인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의 전문적 안내로 이뤄진다.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제주도 곳곳을 방문해 제주도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주 교수는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1, 2> <독도전문록>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등을 집필했다.

프로그램 신청 희망자는 한겨레교육문화센터 누리집(www.hanter21.co.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5월21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kjh@hanedui.com)으로 보내면 된다. 지원서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를 통해 참가자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자 공고 예정일은 5월23일로, 뽑힌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들에게는 미래해양전문가과정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은애 기자 dmsdo@hanedui.com

(5) '해양누리호' 통한 이어도해양과학기지 방문 실시

- 일정

* 1차 : 07. 05(목) 오전 08:00 ~ 20:00

* 2차 : 12. 13(목) 오전 08:00 ~ 20:00

- 참여인원 : 16명(1차)/5명(2차) 참가대상 : 교사, 아카데미 참여자, 대학생 등)

- 선박 :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누리호'(90톤)

- 행사내용 : 해양누리호 및 이어도과학기지 체험/참석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로 행사 평가

- 취지 및 성과

: '이어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이어도의 존재가치를 확인, 이어도 및 해양 관련 다양한 홍보사업 및 관련 연구과제 수행, 국가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적 주권의식 확산 추구

-관련기사 및 사진

『제주인뉴스』 2012.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가다

- 이어도기지 선상 체험을 통해 해양영토 주권의식 확산

양금희 기자, 2012-07-05 오후 10:58:48



(사)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와 제주씨그랜트센터가 주최 및 주관하여 해양영토 주권의식 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방문행사'가 7월 5일 제주항 및 서귀포항, 이어도해역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방문행사는 우리나라 최남단 배타적경제수역에 건설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9주년을 기념하여 해양영토 관리 및 최신 해양과학기술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어도 기지 선상 체험을 통해 이어도 인근해역에 대한 대한민국 관할권 확인 및 국제적 홍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제주대학교 4학년 김동훈 학생은 “말로만 듣던 이어도의 존재를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까 실감도 나고 감동도 받았다며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도이동에 사는 김향숙씨는 “사람들을 통해 이상향으로로써 정확한 정보 없이 지식에 애매한 상태였지만 이어도 아카데미를 통해 이어도의 실체와 정보를 알게 되고 또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대해 감동을 받았다면서 한국사람으로서 제주도민으로서 주권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어도체험행사에 참여한 탐방객들은 한결같이 이어도아카데미를 통해 이어도에 대한 실체와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서산다오에서는 287km, 일본 나가사키현 도리시마에서는 276km에 위치하고 있는 수중암초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제주의 신화와 전설로 잘 알려져 있다. 뱃돌노래로 구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나 땀돌 사용이 없어지면서 과거보다는 제주도민들에게 친숙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수심 55m 암초에 세워진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해양 및 기상 관측소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이 통과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제1호 종합해양과학기지로 순수 국내 자체기술로 1995년 착공하여 8년여 공사 끝에 2003년 6월 완공되어 그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다.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헬기장과 최신 기상 관측 장비 44종 108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설치된 모든 해양 및 기상, 환경관측시스템은 자동무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측된 자료는 무궁화 5호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태풍 예측을 비롯하여 황사, 오염물질, 에어로졸 대기물질 이동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첨단 과학기지로 우리나라 기후, 해양 연구 수준을 몇 단계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인뉴스 양금희 기자>



<이어도기지 2차 탐방행사 사진>

(6) 학습동아리 세미나

1) 'Ocean to Ocean' 해양아카데미 서울동우회 발족

-일시: 2012. 10. 24 18:00~

-장소: 서울 YMCA빌딩

-주최: (사)이어도연구회

-주제: '격동의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과 패권전쟁' 외 4건

-참석인원: 약 30명

-성과: 이어도 아카데미 참여 대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도분야를 학습할 '학습동아리' 구성, 학습결과를 기반으로 세미나 개최 예정

-세부일정

인사말 || "해양아카데미 서울동우회 발족을 축하하며" 고충석(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오션 투 오션 - 바다로 바다로" 주강현(이어도연구회 서울 해양연구센터장)

경과보고 || 유종관 (제4기 회장)

초청강연 || "격동의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과 패권전쟁"

강태호(한겨레신문기자,북한 및 국제정치 전문 前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기별대표인사 || 회장단



<Ocean to Ocean - '바다로 바다로' 사진>

(7) 이어도 문학회 활동 지원

1) 행사명: '시가 흐르는 산지천의 목요일'

-일시: 2012. 5. 31 19:00

-장소: 제주 산지천 해상호

-주최: 재능시낭송협회 제주지회, 제주 시(사랑회 회원,

-후원: (사)이어도연구회, 이어도문학회, 제주인뉴스

-주제: '이어도를 찾아서'(유안진) 외 11건

-참석인원: 약 60명

-취지: 이어도를 소재로 문학창작 활동을 하며 회원들의 문학적 성과를 통하여 이어도와 해양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고양

-순서

여는 인사 _ 제주 시사랑회 회장 김 장 명

특별초대손님 뚜럼브라더스

1. 이어도를 찾아서 _ 유안진 시/김정희 낭송
 2. 이어도가 보일 때는 _ 양금희 시/홍미순 낭송
 3. 이어도 그리고 기다림 _ 김은숙 시/관객 낭송
 4. 이어도를 만나다 _ 오양심 시/김영희 낭송
 5. 이어도-할머니의 전설_김양숙 시/문선희 낭송
 6. 이어도_서석조 시/관객 낭송
 7. 이어도_윤종남 시/관객 낭송
 8. 이어도_김길웅 시/관객 낭송
 9. 이어도 사세_양점숙 시/관객 낭송
 10. 환상, 혹은 이어도_이희정 시/관객 낭송
- 특별공연 _ 뚜럼브라더스
11. 환생하는 섬(파랑도)_김용길 시/손희정 낭송
 12. 이어도_고은 시/김장명 낭송

『제주인뉴스』 2012. 6. 12

‘뚜럼브라더스’, 이어도시낭송회에서 ‘이어도가 보일 때는’을 선보여



이어도문학회 양금희회장과 뚜럼브라더스

제주시사랑회(회장 김장명)가 주최하고, (사)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 및 이어도문학회(회장 양금희), 제주인뉴스(대표이사 강병철)가 공동으로 후원한 제 82번째 제주시사랑회 정기 시낭송회가 5월 31일 오후 7시에 산지천 해상호에서 개최되었는데 ‘이어도시낭송특집’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뚜럼브라더스’가 이어도문학회 양금희회장의 시를 가사로 작곡한 ‘이어도가 보일 때는’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이어도문학회는 이어도를 소재로 문학창작 활동을 하며 회원들의 문학적 성과를 통하여 이어도와 해양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어도문학회 회원들의 이어도와 관련된 시들을 중심으로 ‘뚜럼브라더스’는 올 하반기에 이어도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에 양금희 회장의 시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여서 관객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이번 시낭송회에서는, 첫 번째 낭송으로 이어도를 찾아서-유안진 시/김정희 낭송, 이어도가 보일 때는-양금희 시/홍미순 낭송, 이어도 그리고 기다림-김은숙 시/관객 낭송, 이어도를 만나다-오양심 시/김영희 낭송, 이어도-할머니의 전설-김양숙 시/문선희 낭송, 이어도-서석조 시/이어도-윤종남 시/이어도 사세-양점숙 시/환상, 혹은 이어도-이희정 시 등이 낭송가와 관객 등이 함께 낭송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제주인뉴스 김은숙기자>

2) 이어도의 밤

-일시: 2012. 9. 2

-장소: 제주 화이트하우스

-주최 및 주관: (사)이어도연구회, 이어도문학회,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 청소년이어도지킴이, 어머니서포터즈,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원우회, 제주씨그랜트센터, 제주시사랑회, 제주색동회

-주제: 1984년 이어도 탐사부터 이어도 기지의 건설까지 외 3건

-참석인원: 70명

-취치: 이어도 수호와 이어도홍보 및 해양에 대한 관심 고취

-관련기사

『제주인뉴스』 2012. 9. 2

‘이어도의 밤’ 행사에서 고충석이사장 유관단체들에게 “함께 이어도를 지키자”며 격려



지난 8월 31일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종강에 맞춰 이어도아카데미 수강생을 비롯해 이어도연구회 가족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이어도에 대한 주권의식과 사랑을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이어도연구회 주최로 제주 화이트하우스 3층에서 ‘이어도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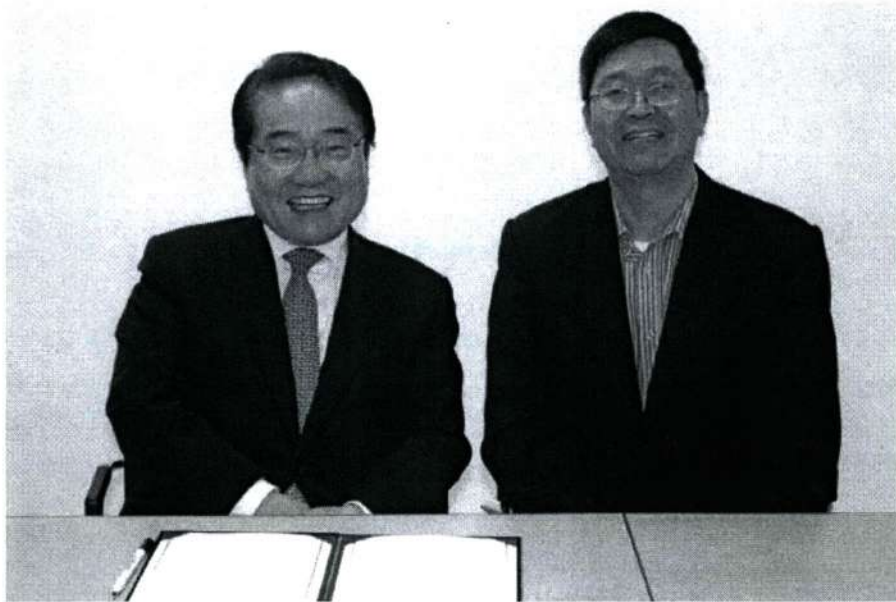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이어도연구회 고충석 이사장은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이 우리바다를 지키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면서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바다이면서 제주의 바다라고 강조하면서 함께 이어도를 지키자고 호소하였다. 그간 이어도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수강생’, ‘이어도 여성지킴이’, ‘제주씨그랜트센터’, ‘청소년이어도지킴이’, ‘뚜럼브라더스’, ‘시사랑회’, ‘제주색동회’, ‘청년 이어도지킴이’, ‘이어도문화회’ 등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일을 위하여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하였다.

‘이어도의 밤’ 행사는 이어도연구회 이정원 연구원이 진행하였으며 고충석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병걸 제주씨그랜트센터센터장, 신영근 이어도아카데미 동호회장, 이어도여성지킴이정복희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만찬과 함께 양금희 이어도문화회장의 ‘문화 속에 나타난 이어도’강좌와 제주시사랑회 이어도관련 시작품 나눔 및 뚜럼부라더스의 공연도 있었다. 1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어도 수호와 이어도홍보 및 해양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기로 결의하였다.

2. 대외협력사업

(1) 국내외 해양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성

- 1) 2012. 5. 25. 대만국립중앙연구원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센터와 학술 교류 MOU 체결



<대만국립중앙연구원 아시아태평양지역 연구센터와 학술교류 MOU 체결>

- 2) 2012. 5. 4. 제주씨그랜트 센터와 학술연구 및 인재양성교류협정체결



<제주씨그랜트 센터와 학술연구 및 인재양성교류협정체결>

3) 2012. 9. 4 서귀포 해경과 MOU 체결



<(사)이어도연구회와 서귀포해양경찰서의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체결식>

- 관련기사 『제주일보』

서귀포해경-이어도연구회, 이어도 지키기 업무 협약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정봉훈)는 4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와 이어도 해역을 둘러싼 주변국간의 분쟁에 대비한 대응정책 및 논리 개발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는 고충석 이어도연구회이사장의 '동북아시아 해양정책과 이어도'란 주제로 이어도 관련 학술 발표가 이어졌다.

정봉훈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이어도 해역을 둘러싼 주변국간의 분쟁에 대비한 대응정책 및 논리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주권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서귀포해양경찰서 793-2112.

4) 2012. 9. 26 제주은행과 이어도지킴이 업무 협약



<(사)이어도연구회와 제주은행 이어도 지킴이 업무 협약식>

(2) 제주여성 이어도지킴이 활동지원

1) 제주왕벚꽃축제 이어도 홍보 부스 참여

- 일시: 2012. 4. 8 ~ 4. 16
- 장소: 종합운동장 일원
- 주최 및 주관: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 (사)이어도연구회
- 참여인원 : 20명
- 취지 및 성과: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어도를 둘러싼 해양인식 고취 및 이어도해양과학기지 홍보

- 설문조사 결과

1. 우리나라의 마라도에 149km떨어져 있는 이어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들어본적이 없다 29.35% (289)② 들어본적이 있다. 70.65% (696)
- 1-1. 이어도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았습니까?
①지역방송 및 지역일간지 32.58% (321)
②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발행 간행지 8.73%(86)
③부모님 등 구전으로 11.87% (117)
④전문학술지 2.84%(28)
⑤기타 14.61% (144)
- 1-1-1. 이어도와 관련된 전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들어본 적이 없다 44.57%(439)② 들어본 적이 있다. (546) 55.43%
- 1-1-2. 이어도와 관련된 민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들어본 적이 없다. 54.51% (537)② 들어본 적이 있다. 45.49%(448)
2.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모른다. 56.85% (560) ② 알고 있다. 43.15% (425)
- 1-2. 이어도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① 해본 적이 없다. (550) 55.83% ② 해본 적이 있다. 44.17% (435)
- 1-2-1. 어떤 내용을 주로 검색해 보았습니까?
① 이어도의 전설9.23% (91)
② 중국의 이어도에 관한 공정8.02%(79)
③ 이어도에 관한 일반 현황6.19% (61)
④ 이어도해양과학기지단지13.9% (137)
⑤ 이어도에 관한 정부의 성명과 논평1.92% (19)
⑥ 기타4.87% (48)
3. 우리나라의 이어도에 관한 중국명칭은 '소암', '소암초, 쑤옌자오'라고 하는데 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들어본 적이 없다. 72.18% (711) ② 들어본 적이 있다.27.82% (274)
4. 중국의 이어도공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들어본 적이 없다. 67.1% (661) ② 들어본 적이 있다.32.9% (324)

5. 귀하께서는 이어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없음 10.15% (100)

② 없음 15.32% (151)

③보통 41.91% (403)

④많음 20%(197)

⑤매우 많음 13.60% (134)

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어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치 않음 9.94% (95)

②중요치 않음 7% (69)

③보통 17.15% (169)

④중요함 31.06% (306)

⑤매우 중요함35.12% (346)

* * * * *

1.귀하의 성별은? 남 40.72% (401) 여 59.28% (584)

2.귀하의 연령은?

10대 20.50%(202)

20대 13.60% (134)

30대 14.92%(147)

40대 20.10%(198)

50대 17.15%(169)

60대 13.70%(135)

3.귀하의 거주 지역은?

제주시 63.95% (630)

서귀포시 8.22% (81)

서울 5.88% (58)

오산 11

강릉 11

경주 11

부산 14

인천 20

경산 15

여주 12

원주 14

목포 22

광주 18

대전 14

평양 16

수원 12

울산 14

- 관련기사

『제주인뉴스』 2012. 4. 12

제주여성 이어도지킴이, 이어도 인식 설문조사 및 이어도 홍보

- “이어도는 어디에 있을까”

김은숙 기자, 2012-04-12 오전 00:16:53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회장 정복희)는 지난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제 21회 왕벚꽃 축제에 참여, '이어도 바로알기'행사를 진행했는데 3일간에 걸친 행사에서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는 이어도에 대한 관광객과 시민들의 인식수준을 조사하고 이어도 위치에 부스 방문객이 직접 스티커를 붙이도록 유도하며 이어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행사는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가 주최하고, (사)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의 후원으로 치러졌는데 “이어도



바로알기"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활동에서는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의 안내하에 부스 방문객들이 직접 이어도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고 정확한 이어도의 위치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부스 한켠에서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와 이어도 수중생태를 다룬 사진이 전시되었다.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는 이번 행사에서 제21회 제주왕벚꽃축제에 참여한 관광객과 시민 가운데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응답 결과를 토대로 이어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인식을 국내외에 제대로 전파

하기 위한 향후 홍보활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는 지난 2월 17일 발족식을 기점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한편, 이어도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꾸려진 제주여성 이어도지킴이는 30여명의 전·현직 중등교사와 대학강사들, 각종 국제행사에서의 외국어 자원봉사활동경험이 풍부한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향후 교육현장과 국제행사에서 체계적으로 이어도 홍보의 선봉에 설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인뉴스 김은숙기자>

2)세계자연보전총회(WCC)이어도 홍보 부스 참여

- 일시: 2012. 9. 6~9. 15.
- 장소: 제주컨벤션센터 이어도프라자
- 주최 및 주관: 제주여성이어도지킴이, (사)이어도연구회
- 참여인원 : 20명
- 취지 및 성과: 이어도 문제의 현황정보 제공과 해양영토 문제의 중대성 알림, 이어도 해역의 수중생태 소개를 통해 해양환경보존의 필요성 강조,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소개함으로써 이어도 과학기지의 존립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 형성
- 관련 사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이어도 홍보 부스 참여>

(3) 청소년 이어도지킴이 활동지원

1) 청소년이어도지킴이 리더십 워크숍 개최

- 일시: 2012. 2. 18 ~ 19 09:00~18:00
- 장소: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 주최 및 주관: 청소년이어도지킴이, 어머니서포터즈, (사)이어도연구회
- 참여인원: 50명
- 취지 및 성과: 청소년이어도지킴이로서의 사명과 비전 발표
- 관련기사

『제주인뉴스』 2012. 2. 21

‘이어도’도 배우고, ‘리더십’도 키우고

강경민 기자, 2012-02-21 오후 03:32:34



(사)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가 주관하고 청소년이어도지킴이(어머니서포터즈 대표 변우현)이 주최하는 ‘청소년 이어도지킴이 리더십 워크숍’이 지난 18·19일 양일간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청소년 이어도지킴이 5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결성된 순수 민간단체 ‘청소년 이어도지킴이’는 이어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통해 이어도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도내 중·고생 50여명과 이들을 지원하는 어머니 서포터즈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지킴이는 지난해에 이어도 거리홍보 및 이어도 설문조사 등을 벌였다.

이번 리더십 워크숍의 주제는 '이어도 해양주권 수호자로서의 리더십 계발'이다. 워크숍은 △이어도 수호자로서 청소년 리더십 계발 △해양주권 의식의 발전을 통한 청소년 이어도지킴이의 일원으로서 비전 형성 △리더십 훈련을 통해 청소년 이어도 지킴이로서 가치관 형성 등의 목적으로 열렸다.

강의 1일차인 18일에는 모두 네 개의 강좌가 열렸다.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 리더십 △제주역사와 문화 속에 나타난 이어도 △한국과 중국의 서사구조에 나타난 이어도 △이어도 영유권을 둘러싼 쟁점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2일차에는 두 개의 강좌가 열렸다. △이어도의 실효적 지배와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이어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사명선언식'도 열렸다. '사명 선언식'에서 각 참석자들은 이어도지킴이로서 사명과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개개인이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목표를 확인하고 해양주권의식을 강화했다.

<제주인뉴스 강경민 기자>

2) 청소년 이어도지킴이 워크숍과 거리홍보 '대한민국의 보물, 이어도'

- 일시: 2012. 8. 19 10:00~ 19:00
- 장소: 제주웰컴센터 강당, 제주국제공항, 신제주 일대
- 주최 및 주관: 청소년이어도지킴이, 어머니서포터즈, (사)이어도연구회
- 참여인원: 100명
- 세부일정:

2012 청소년이어도지킴이 워크숍과 거리홍보

대한민국의 보물, 이어도

진행 변우현 (서포터즈 전회장)

시간	내용	진행	비고
9:30~10:00	등록(명단, 조별 확인)	박세리(지킴이 홍보부장), 조현아(지킴이 관리부장)	
10:00~10:10	개회 국민의례		
10:10~10:20	격려의 말씀	고충석 이사장(사)이어도연구회	
10:20~10:25	청소년이어도지킴이 회장 인사 및 임원소개	이정훈(지킴이 회장)	

10:25~10:35	청소년이어도지킴이 활동 보고	이정훈(지킴이 회장)	
10:35~10:55	이어도 바로알기 교육	조성현(지킴이 전회장)	
10:50~11:10	이어도주변에 대한 시사적 문제	김민영 (사)이어도연구회 연구원	
11:10~11:20	오늘의 활동내용 설명 및 거리홍보 조장 소개	김혁진(지킴이 기획부장)	
11:20~12:00	조별 모임	각 조(10명 6조)별 조장과 회원	
12:00~13:00	점심	써포터즈	
13:00~16:00	웰컴센터 출발 - 공항(버스이용) - 제원사거리 상가지역홍보 - 노형5거리앞 홍보(이마트,롯데마트,롯데시네마주변) - 기적의 공원 집결		
16:00~17:00	기적의 공원 집합, 조별 평가모임및 해산(주관; 박주영, 써포터즈 현회장)		

-관련사진



<청소년 이어도지킴이 워크숍과 거리홍보 '대한민국의 보물, 이어도'>



<청소년 이어도지킴이 워크숍과 거리홍보 '대한민국의 보물, 이어도'>

3)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HAFS Peace Forum' 동아리지원

- 교과부 등이 후원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하는 제7회 청소년역사체험대회에 '우리 해역 이어도 이야기'라는 주제의 연구 발표문 응모
- 일시 : 2012년 5월 19일
- 주최 : HAFS Peace Forum
- 후원 : 이어도연구회,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CBS기독교방송, 분당내일신문
- 관련기사

『제주인뉴스』 2012. 4. 20

[사회] 이어도지킴이 활동에 나선 HAFS Peace Forum 회원들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3학년인 강승문부장과 국제과정 2학년 신희승차장(17·용인외고 2년)이 이끌고 있는 HAFS Peace Forum동아리에서 최근 이 어도 지킴이 활동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HAFS Peace Forum 동아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러시아,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갈등, 현안 이슈 및 화해 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 수준에서의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세계역사NGO포럼, 동북아역사재단,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러시아, 일본, 중국은 물론 세계에서 역사와 관련된 학자와 전문가들이 300-500여명이 참여한 제4회 역사NGO세계대회(8.18-22일, 연세대)에 참가하였는데 이 대회의 '동북아 역사화해와 평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포럼' 세션에서 공동 운영 및 'DMZ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 및 생태환경 보전방안', '러-일간 갈등 사례 및 화해 협력 방안' 주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8.15 광복절을 기해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영토분쟁 사례를 알아보고, 그동안의 '대결'을 극복하고 '화해'로 나아가자는 요지의 책자 <동북아의 영토문제: '대결'에서 '화해'로 - 전문가들로부터 듣는다>를 용인외고 HAFS Peace Forum과 대원외고 독도연구 동아리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이들은 2012년도에 교과부 등이 후원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하는 제7회 청소년

년역사체험대회에 ‘우리 해역 이어도 이야기’라는 주제로 응모하고, 최근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어도는 이미 우리나라가 관할하고 있는 해역임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제7회 청소년 역사체험 발표대회 참가 동아리구성원은 강승문부장(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3학년), 신희승차장(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과정 2학년), 남재현(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과정 2학년), 정택승(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과정 2학년), 김도훈(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과정 2학년) 등이다. 이들이 예선(서류 심사) 및 본대회 참가 동아리로 결정되면 본대회일인 6월 16일 행사에 참가하게 된다.

<제주인뉴스 김은숙기자>

(4) 이어도 아카데미 원우회 이어도 홍보

- 일시 : 2012년 10월 18일 / 12월8일
- 장소 : 마라도 및 절물 휴양림 일원
- 내용 : 도내 해양영토 방문 및 이어도 홍보
- 행사사진



(5) 청년 이어도지킴이 출범

- 일시 : 2012년 11월 27일 16:00
- 장소 : 이어도연구회 세미나실
- 내용 : 송성대(제주대 명예교수) / 고충석 이사장 강연
- 인원 : 도내 대학/대학원생 20명



<청년 이어도지킴이 출범>

(6) <제주KBS> 아침뉴스 이어도 해역 날씨정보 제공

- 방송시작 : 5월14일(월)부터 매일 오전 7시 <뉴스광장 제주>
- 이어도에 대한 국민적 실체 확인
- 이어도에 대한 관심 촉구 및 해양주권 의식 고취



3. 연구과제

(1) 2012 이어도연구 수행과제

분 야	과제명	연구자(소속)
해양법	한반도 주변수역 대중갈등 요소와 대응방안 연구	김현수(인하대) 양희철 (한국해양연구원)
	해양분쟁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대응과 이어도 분쟁 대응 방안	고경민(통일교육센터) 강병철(이어도연구회)
	중국의 해양정책 연구 - 영토분쟁과 중국 해군 군사력 신장의 관계	김희열(제주대) 부승찬(연세대)
인문 /사회	이어도 및 이어도과학기지에 대한 역사민속학적 해석	조성운(제주대)
	이어도의 지적 원천과 존재론적 의미	김은식(제주대)
	이어도 정체성에 관한 철학적 탐색	하순애(철학박사)
	이어도의 지명 형성 유래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송성대(이어도연구회)
	최근 10년간 국내 보도기사를 통해 바라본 언론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	부영주(전 제주일보 논설실장)
해양과학	이어도 기지 과학적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이동인(부경대) 최광천(인천기상대) 조수만 (㈜코엠정보통신) 정범진(제주대)
	이어도기지 관측데이터 활용 극대화 추진	배진호(제주대) 이병걸(제주대)
홍보	이어도 인지도 제고방안 연구	양덕순(제주대)
시설설계	이어도 포켓공원 설치 타당성 연구	김태일(제주대)

(2) 2012 이어도연구과제 최종보고서

1) 이어도연구과제 중간보고회

- 일자 및 장소 : 7월 24일(화) 09:30 ~ 17:00 /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행사일정

번호	시간	발표자 (책임연구자)	과제명
1	10:00 - 10:20	조성윤	이어도 및 이어도 과학기지에 대한 역사민속학적 해석
		제주대학교	
2	10:20 - 10:40	김은석	이어도의 지적 원천과 존재론적 의미
		제주대학교	
3	10:40 - 11:00	배진호	이어도기지 관측 데이터 활용 극대화 추진
		제주대학교	
Coffee Break			
4	11:10 - 11:30	송성대	이어도의 지명 형성 유래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어도연구회	
5	11:30 - 11:50	부영주	최근 10년간 국내 보도기사를 통해 바라본 언론의 이어도에 대한 인식
		전 제주일보	
6	11:50 - 12:10	양덕순	이어도 인지도 제고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중식(12:10-14:00)			
7	14:00 - 14:20	김태일	이어도 포켓공원 조성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8	14:20 - 14:40	이동인	이어도 기지 과학적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Coffee Break			
9	14:50 - 15:10	고경민	해양분쟁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대응과 이어도 분쟁 대응방안
		이어도연구회	
10	15:10 - 15:30	김희열	중국의 해양정책 연구 -영토분쟁과 중국 해군 군사력 신장의 관계
		제주대학교	
11	15:30 - 15:50	김현수	한반도 주변해역 대중갈등 요소와 대응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종합토론 (15:50~16:50)			

- 행사사진



2) 이어도연구과제 최종보고회

- 일자 및 장소 : 12월 5일(수) 13:00 ~ 17:00 / 국립해양조사원 대회의실

- 행사일정

번호	시간	발표자 (책임연구자)	과제명
1	13:20 - 13:50	조성윤	이어도 및 이어도 과학기지에 대한 역사민속학적 해석
		제주대학교	
2	13:50 - 14:20	김현수	한반도 주변해역 대중갈등 요소와 대응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3	14:20 - 14:50	양덕순	이어도 인지도 제고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4	14:50 - 15:20	배진호	이어도기지 관측 데이터 활용 극대화 추진
		제주대학교	
5	15:20 - 15:50	이동인	이어도 기지 과학적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6	15:50 - 16:20	김희열	중국의 해양정책 연구 -영토분쟁과 중국 해군 군사력 신장의 관계
		제주대학교	
7	16:20 - 16:50	고경민	해양분쟁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대응과 이어도 분쟁 대응방안
		통일교육센터	

- 행사사진



4. 연구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1) 언론홍보 추진-중국의 이어도 동남공정(東南工程) 적극 대응

중국의 이어도 관련 발언 후 20여개 이상의 언론사와 인터뷰 및 칼럼, 대담 등 진행

* 신문, 잡지 : <조선일보>, <연합뉴스>, <서울신문>, <주간동아>, <서울경제>, <한겨레>,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등

* 방송 : <KBS>, <TV조선>, <아리랑TV>, <MBN>, <YTN>, <포항MBC> 등

(2) 이어도 문화홍보-이어도 노래제작

- 일시: 2012. 12. 9 18:30

- 장소: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 주관: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

- 세부행사 내용

시간	행사내용
오프닝 19:00-19:30	뚜럼 브라더스 - 이어도 시 주제 노래 제작 및 발표

<p>전반부 19:30~20: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곡 “이어도” • 가요 “이어도가 답하기를” 	<p>-가곡“이어도”테너 김성록, 바리톤-권순동, 테너-김호중</p> <p>-“이어도”노래 기획제작, 작사, 작곡에 대한 대담(진행 김병찬)</p> <p>*고충석 이사장, 양인자 작사가, 김희갑 작곡가</p> <p>-“이어도”노래 색소폰 연주 찰리김</p> <p>-가요 “이어도가 답하기를” 김국환</p> <p>-“이어도”가요에 대한 대담(진행 김병찬)</p> <p>*고충석 이사장, 양인자 작사가, 김희갑 작곡가</p> <p>-“이어도가 답하기를”김국환</p> <p>-“이어도가 답하기를” 색소폰 연주 찰리김</p>
<p>후반부 20:20~2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노래) 	<p>-김성록: 아름다운 나라, 그리운 금강산</p> <p>-권순동: 향수, 오페라 아리아</p> <p>-김호중: 얼굴,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p> <p>-찰리김: 동행, 대니보이</p> <p>-김국환: 타타타, 내 인생 후회는 없지만 등</p>

- 이어도 노래 가사

* 이어도 (가곡)

아득한 바다 바다 저멀리 우리의 터전 펼쳐지는 곳
 먼 바다 푸른 물여울 바람으로 불어와
 나아가라 나아가라 갈길을 일러주네

어둡고 막막한 세상살이 가슴에 불씨 꺼질 때
 눈을 들어 보기만해도
 한세상 걸어가는 길 하나를
 보여주는 이어도 이어도
 파도가 잠들지않고 용솟음 치는 것은
 내 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이어사나
 그대 그대 그대 이어도

• 이어도가 답하기를 (가요)

너를 불러보았다 이어도
그리워서 불렀다 이어도

한라산이 열리면서 바다 속에 숨겨놓은 연인
마라도 남남서쪽 일백사십구킬로

4미터 물 속 아래 숨바꼭질하는 그대
오늘도 안녕하신가 루 루 루 루

너를 불러보았다 이어도
그리워서 불렀다 이어도

파도가 밀려와 그대 말을 전한다
무사마시 무사마시 오 무사마시 무사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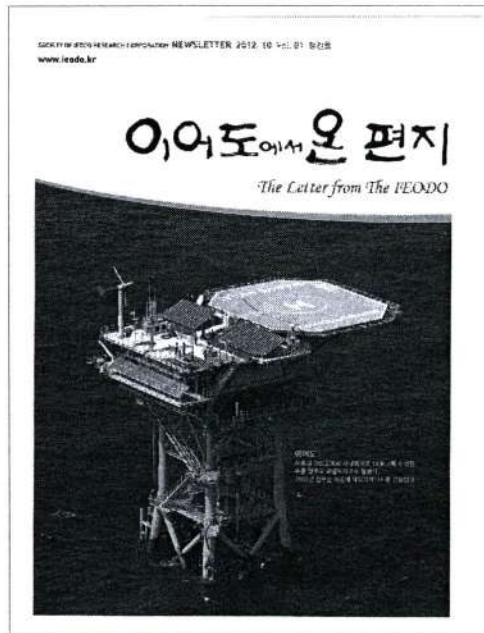
난 언제나 여기 있어요
난 언제나 당신의 것이예요

- 행사사진



3) 이어도에서 온 편지(Letter from Jeo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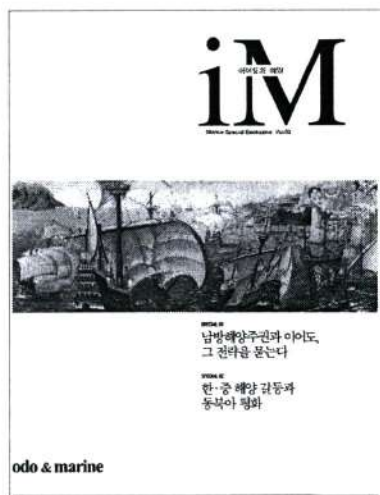
- 3개월 간격으로 계간지 발간
- 10.20 창간/이어도연구회 다양한 소식 대중적 관점으로 전달
- 이어도 및 해양에 대한 각종 분야의 정보 등 전달



<이어도에서 온 편지>

4) 해양주권홍보 대중잡지 <Jeodo and Marine> 발간

- 이어도 및 해양 전반의 다양한 정보를 대중적 취향으로 전달
- 해양주권 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쟁점 논의의 장 마련



<Jeodo and Marine 발간>

5) 코리아타임즈 및 신문매체를 이용한 이어도 홍보

『Korea Times』 2012. 11. 3

Seoul should forge peace zone in East China Sea

Koh Choong-suk

President of the Society of

Ieodo Research

By Kim Young-jin



Korea can use the Ieodo issue to build confidence among countries bordering the East China Sea and transform the area into a “peace zone,” an expert said Tuesday.

To do so, Ko Choong-suk, director of the Society of Ieodo Research, said Seoul should take a long-term approach to maritime delimitation, starting by fully discerning the intentions of China, which claims jurisdiction over the submerged rock – despite it being located closer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ong run, it is not appropriate to make Ieodo a territory disputed by militaries. That would be a big loss when it comes to national power and it would bring insecurity and distrust,” Ko told The Korea Times. “Korea, China and Japan need to make the East China Sea a peace zone to share peacefully.”

The rock sits in the overlap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EEZ) of Korea and China. But Seoul and Beijing have yet to make headway during 16 rounds of negotiations over Ieodo and the delimitation of their maritime boundary. Some say China’s protest over Seoul’s jurisdiction ties in with its bid for greater naval clout.

Ko said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seek ways to cooperate in the resource-abundant East China Sea, including through the Seoul-run Ieodo Ocean Research Center.

“We have to find out the way to utilize the research station gradually with other nations. If neighboring nations exchange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the humanities, culture, history, natural science, differences in viewpoints will decrease,

which will create confidence to make the peace zone," he said.

In terms of dealing with Beijing, Ko said a patient strategy would work best, citing recent history. In March, Bangladesh won a longstanding dispute with Myanmar over the delimitation of a maritime boundary in the Bay of Bengal. Bringing the case before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Law of the Sea, it earned a full 200 nautical mile EEZ.

Vietnam and China were also able to agree in 2005 on a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Gulf of Tonkin through long term negotiations.

"The government has been negotiating on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with the Chinese government since 1997, which means it's a process that takes some time to reach a satisfying result. We need to maintain a steady attitude.

He added, "Calm and objective judgment is required to predict the purpose and motion of China."

The call for shared efforts comes at a time of dispute over maritime territor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Cooperation in the East China Sea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overall relations but it must be carried out in a sincere, fulsome manner, Ko s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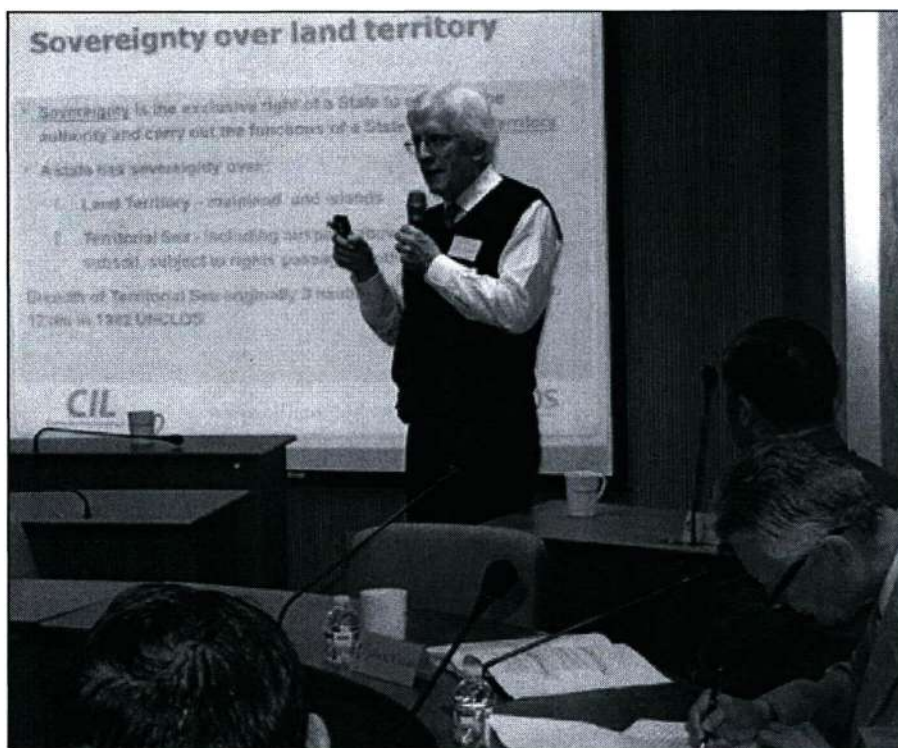
"International negotiation and cooperation is needed. That should be followed by continuous cooperation, discussion and information sharing by scholars and NGOs from these nations."

Clearing up differences in the East China Sea is increasingly seen as a pressing task given its strategic importance as a source of natural resources and a valuable sea lane. It is also an important fishery area as leodo is near where the Tshushima warm current moves northward and the West Sea coastal waters move south, both converging with coastal waters from the Chinese mainland.

He said the Society of leodo Research Society would play its role in fostering understanding. Established in 2007, the organization has sought to raise awareness and "to establish academic logic to protect the leodo area."

Ko said the organization would launch a study on China's strategy toward leodo. He encouraged society to learn more about the reef's importance to Korea. "To make people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leodo, teachers at the chalkboard should know about it in detail," he said, adding that the research society is authorized as a teacher training institute.

Long-term vision needed on East China Sea disputes



Robert Beckman, director of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discusses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during an international forum cosponsored by the Society of Jeodo Research, the Center for Asia-Pacific Area Studies and The Korea Times in Taipei, Taiwan, Thursday. / Korea Times photo by Kim Young-jin

By Kim Young-jin

Taipei —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take a pragmatic, long-term approach to boundary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experts said Friday, warning that domestic politics can rapidly escalate tensions.

The sea is the stage for complex debates over geographic features including leodo, a submerged rock claimed by both Seoul and Beijing; and disagreements between Japan and China.

On Thursday and Friday, an international forum here tackled the regional disputes, which in the case of the East China Sea are hampering exploration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oil.

"Maritime issues are becoming vital in East Asian seas," said Koh Choong-suk, president of

the Society of Jeodo Research, which co-sponsored the event with the Center for Asia Pacific Studies and The Korea Times.

"We need to find resolutions to these escalating tensions so we can peacefully share the ocean."

The three countries are party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and have the option of arbitration. But the experts said UNCLOS is subject to interpretation and the countries see third party involvement as risky to national interest."

While the Diaoyu/Senkaku spat between Japan and China is the most visible of the disagreements, the countries are tussling over their respective exclusive economic zones (EEZ), which give them rights to explore and the resources discovered. One such debate involves Japan's Okinotorishima, a tiny reef, as critics say it overly expands Tokyo's EEZ.

While it was agreed that cooler heads should prevail over the matters – which are difficult for political and historical reasons – views differed on how they should be handled.

Robert Beckman, director of the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at the National University, urged parties to seek international arbitration.

"If you want to resolve (the disputes) the best way is to give them to a neutral third party. It's a way to move on and improve your relations," he said.

"The problems continue to become more emotional when you don't take it to a third party and politicians play the nationalism card because it makes them more popular at home."

John Chao, an international law professor at the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in Taipei, held a different view, saying China would not likely trust an international court. He said launching joint projects could be more effective. "We need cooperation. You can do a lot of things by putting aside disputes over rocks."

The road could be rough for now as each country must weigh domestic concerns against engagement.

In the case of China, some believe that the handover of power to its fifth generation of communist party leaders in mid-October has fueled assertiveness regarding territory.

Beijing, they said, may seek to stoke nationalist sentiment to sweep the corruption scandal surrounding Bo Xilai under the rug. In Tokyo, politicians could push territorial disputes up on the agenda in the run-up to national elections.

Various opinions on Jeodo were also expressed.

Choi Yeon-hong, a scholar with SIR, emphasized the role of culture in settling disputes, citing a Korean myth that fishermen lost at sea would spend eternity on Jeodo. "Jeodo represents a utopia for the Jeju people," Choi said. "We should factor in humankind."

The Jeodo rocks became an issue in 1996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tended the maximum reach of EEZs to 200 nautical miles, this created overlapping zone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Jeodo falls in the overlap of the Chinese and Korean EEZ.

Seoul says that because it is 136 kilometers closer to the peninsula it could be recognized as within the nation's maritime boundary through negotiations based on equidistance. Beijing calls for "the natural prolongation" of its land territory.

While both stances are valid under UNCLOS, the sides have failed to make headway in already a dozen rounds of negotiations.

Beckman stressed international involvement. But Yann-huei Song, a research fellow at CAPAS, said more bilateral negotiations were needed.

"The best way to resolve the dispute is to ask Beijing and Seoul to speed up the process of negotiation...then it will be easier to determine which country can exercise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Song said.

yjk@koreatimes.co.kr,

2012. 9. 18

Why Jeodo matters



Boats circle the Seoul-run ocean research center built atop Jeodo, a submerged rock 150 kilometers southwest of Marado, the nation's southernmost island in this undated file photo. Experts say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for Korea. / Korea Times file

Reef vital to protecting Korea's economic zone

By Kim Young-jin

Some 150 kilometers southwest of Marado, the nation's southernmost island, sits Ieodo, a submerged rock with a unique place in Korean lore. As the story goes, fishermen from Jeju Island were destined to spend eternity there should they perish in rough waters.

What's not myth is the significance of the reef to Korea, whose jurisdiction is protested by China despite it being 136 kilometers closer to the Korean Peninsula. Experts say it is important to address the matter given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East China Sea as well as concerns over Beijing's naval activities.

"It is of great strategic interest considering China's strengthening naval power," said Kang Byeong-cheol, a research fellow of the Jeju-based Society of Ieodo Research. "Because China is a powerful country, Korea must look after the interests of it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The issue — which will be the focus of an international forum in Taipei this week co-hosted by The Korea Times, the Society of Ieodo Research and Academia Sinica — has made headlines in recent years due to hardening rhetoric from China.

In March, Liu Cigui, the director of Beijing's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aid Beijing would enhance maritime patrols and enforcement of domestic law over its areas of jurisdiction including Ieodo, prompting Lee Myung-bak to speak out on the matter.

"How we manage the waters near Jeju is closely related to South Korea's economy," Lee said. "Thus (we) cannot help but respond sensitively to this issue. Whatever form it may take, Ieodo comes within South Korea's jurisdiction."



The map shows the submerged rock of Ieodo in the East China Sea. Despite being 136 kilometers closer to Korea's southwest island of Marado than to China, Beijing is ramping up claims to the reef.
/ Korea Times

Boundary woes

Jeodo, known internationally as Socotra Rock, is not seen as a territorial dispute but one over EEZs. With potential oil reserves at stake, China, Japan and Korea all seek to curry international opinion over maritime boundaries in the East China Sea in their favor.

Situated 149 kilometers from Mirado and 287 kilometers from the nearest Chinese island, Sheshandao, Jeodo is closer to Korea, and scholars say the myth gives the reef an important place in Korean culture.

Formerly recognized to be in international waters, the rocks became an issue in 1996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tended the maximum reach of EEZs – which give special rights to use of exploration and resources – to 200 nautical miles (370 kilometers).

In the case of the East China Sea, this created overlapping zone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Jeodo falls in the overlap of the Chinese and Korean EEZ, meaning it is up to the states to delineate the actual maritime boundary. They have made no headway in 16 rounds of negotiations.

“The East China Sea is narrow. So delimitation is difficult and the sides must continue to negotiate,” Kang said.

Seoul’s case lies in the “median line” principle that delineates a maritime boundary equidistant from the two sides. Korea also argues that the rocks are located on its continental shelf.

Beijing – calling the reef “Suyan” – calls for the “natural prolongation” of its land territory and insists the matter be dealt with through a series of negotiations.

After Seoul’s construction of the research center, which collects data on weather, fish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eijing began conducting surveillance activities in surrounding waters. It began claiming the rocks as in its jurisdiction in 2006.

Its calls grew louder in July 2011, when it sent three patrol boats to waters there as South Korean workers were trying to raise a recently-sunken carrier.

Strategic concerns

Interest in the sea from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picked up in 1980 when huge oil and gas deposits were confirmed to be there, on top of abundant fishery resources including croaker, herring, bass, mackerel, flounder and squid.

But conflicts such as Jeodo have prevented the countries from tapping the resources in the sea. Japan also has issues with China over jurisdiction of its Okinawa Trough.

“Seeking mutual benefits or joint exploration of sea-bed resources is considered wishful

thinking, too idealistic and utopian," scholar Choi Yearn-hong said in a recent paper written with Koh Choong-suk, president of the Ieodo research organization.

Some experts believe China's stance is linked to greater maritime ambitions, highlighted by disputes with Japan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and with Southeast Asian nations.

This has included protests to South-U.S. military drills near its shores. Through jurisdiction of Ieodo it would secure a sea route for fleets in the area to advance into the Pacific.

Watchers say Beijing is working on a substantial modernization of its maritime paramilitary forces and naval capabilities to enforce its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claims. China also has spats with the Philippines and Vietnam over their respective EEZs in the oil-rich South China Sea.

Beijing's recent rhetoric over Ieodo coincided with that over the South China Sea. China, which in theory claims nearly the entirety of that sea, has hardened rhetoric and sent vessels to test adversaries' positions.

"To be consistent with its demand that the U.S. cease performing military operations, China would not be able to undertake any military operations in the waters of South Korea's EEZ," researcher Kang said. "As such, to preserve its own security interests, China prefers a status quo policy and used strategic ambiguity on the Ieodo issue."

Raising awareness

In addition to the cultural importance of Ieodo to Jeju and the rest of Korea, the rocks could increase in importance in the future, Choi and Koh said.

"The future will be dictated by changing science and technology. Rocks which have been worthless may be worthwhile in the future by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at they may cause more disputes," they said.

They proposed that the simplest solution should be applied to mitigate any escalation of tension. "They should belong to the next human settlements-- island or coastal land. This proposal has been more time-honored than any human rule over the sea."

With regional players at a seeming stalemate for now, Kang opined that the issue should be continually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st people don't know about the EEZ regime. It's important to discuss it so that people know why it is so strategically important."

(4) 영문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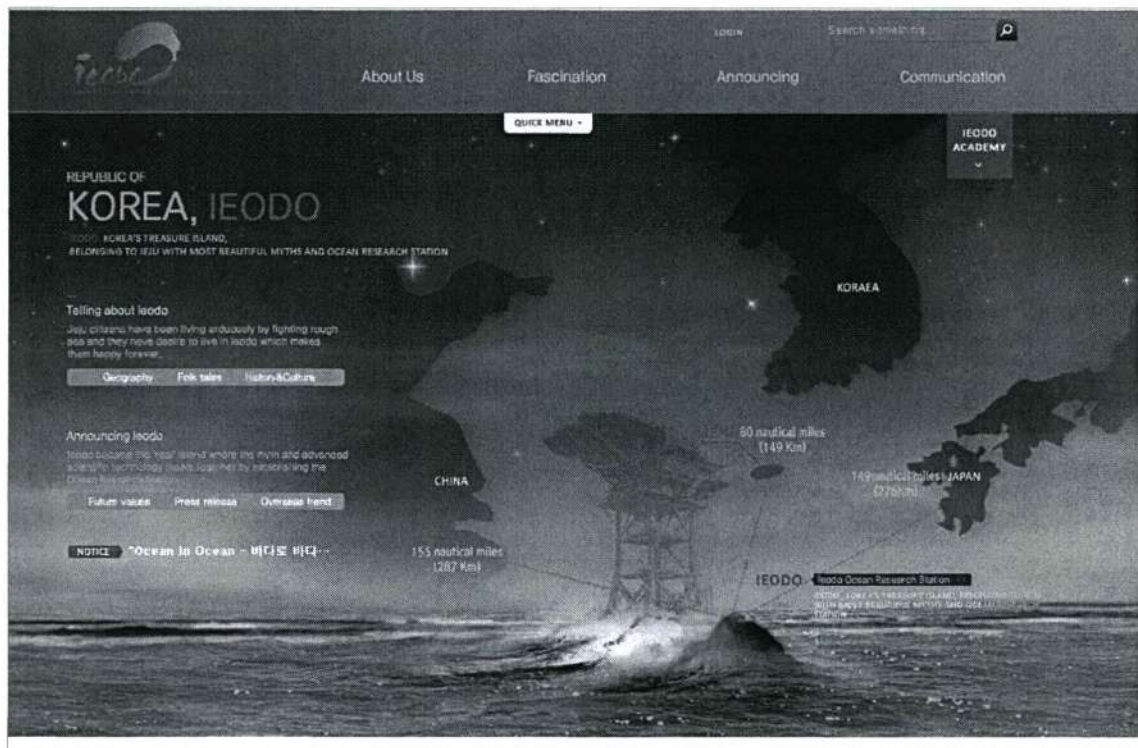
- 이어도에 대한 각종 정보 국제적으로 제공
- 이어도 및 해양주권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여론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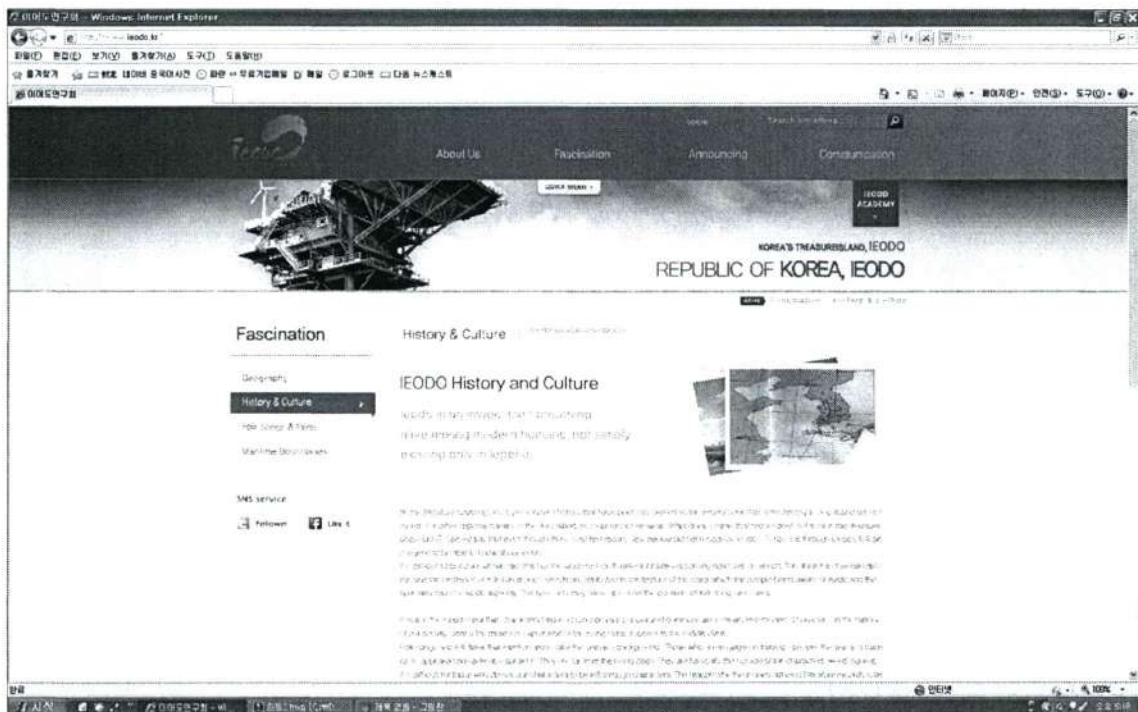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소개 및 링크>



<이어도 학술자료 검색서비스>



<영문 홈페이지 메인화면>



<영문 홈페이지 화면>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시행한 이어도 연구회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시행한 이어도 연구회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어도 주변해역의 해양·법적·인문학적 조사 및 DB구축 결과보고서

발간등록번호 : 11-1611234-000254-01

발행일 : 2012년 12월 15일

발행처 : (사)이어도연구회
